www.stylechosun.co.kr

10

October 2026
vol. 309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New Bags Special

Cartier

Hermès, ride on!
HERMÈS
PARIS
Publicis ÉtNous

PRADA

PRADA.COM

FRED

THE SUNSHINE JEWELER
SINCE 1936

Contents

OCTOBER 2026 / ISSUE.309

10_SELECTION 화사한 컬러와 위트 있는 디테일로 필드 위 스타일을 완성할 스포티 아이템.

11_PRECIOUS STRUCTURE 예술적 건축물을 능가하는 주얼리의 정교함과 견고함.

12_SELECTION 클래식한 웨어부터 라운딩의 완성도를 높여줄 기어까지, 스포츠 라이프를 즐기는 남자를 위한 셀렉션.

13_FRESH KICKS 스포티한 실루엣부터 과감한 소재와 컬러 조합이 돋보이는 디자인까지, 지금 주목해야 할 스니커즈를 모았다.

14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16_붉은 백합의 피렌체와 순백 대리석의 카라라 르네상스의 빛이 가장 눈부시게 머무는 피렌체(Firenze)에서 시작해 아푸아네 알프스의 흰 산을 품은 카라라(Carrara)로 향하는 짧지만 밀도 높은 여정. 피렌체가 붉은 백합을 품은 꽃의 도시라면, 카라라는 순백의 대리석과 채석장의 산을 품은 돌의 도시다. 하나는 아름다움을 꽃피운 도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아름다움을 가능하게 한 도시 중 하나다.

20_서로 같아지지 않아도 되는 목소리들 바다를 통해 사람과 물자가 오가고 이주와 정착이 이어져온 항구도시 부산. 지금 이곳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동시대 감각이 교차하는 예술의 장, 부산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다. 서로 다른 음정과 리듬으로 충돌하고 교차하며, 때로는 낯선 울림을 빚어내는 이들의 목소리는 차이를 지우지 않은 채 연대한다.

22_THE WORLD OF CARTIER 까르띠에는 1백80여 년의 시간 동안 주얼리와 워치메이킹을 비롯해 향수, 액세서리, 레더 제품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넓혀왔다. 하이 주얼리 컬렉션과 찬란한 순간을 기념한 이벤트, 그리고 새로운 백 컬렉션. 10월, 까르띠에가 선보이는 새로운 면면을 들여다본다.

26_WATCHES THAT TRAVEL 시와 분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 듀얼 타임, 월드타이머 등 다른 시간대의 시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워치를 소개한다. 출장과 해외여행이 잦은 이들을 위한 트래블 워치 6.

27_CONFLUENCE OF ARTISTRY 예술과 워치메이킹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블로가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와 만나 2개의 새로운 타임피스를 공개했다.

28_NOTHING BETTER 단단한 구조와 유연한 감각 사이 섬세한 균형, 새 '코르소(Corso)' 백으로 증명하는 보테가 베네타의 미학.

29_SMALL, YET STRONG 축소는 정체성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더욱 응축하는 과정이다. 2026 F/W 컬렉션에 새롭게 작아진 사이즈로 등장한 프라다 버클 백이 이 사실을 증명한다.

30_MOST DESIRED 새로운 잇 백의 유혹. 소재와 사이즈의 다양한 변주와 함께 가을 스타일을 완성하다.

40_GET THE LIST 보통의 하루가 모여 특별해지는 순간. 일상 곳곳에 스며든 스몰 럭셔리.

42_THE SEASON DEEPENS 가을에 스미듯 짙고 고요한 2026 F/W 백의 결.

50_EDITOR'S PICK 새로운 계절을 맞아 눈여겨볼 이달의 뷰티 리스트.

까르띠에 '인투 더 와일드' 컬렉션은 메종의 유산과 장인의 손길, 젬스톤의 광채가 어우러져 야생의 본능을 드러낸다. 새와 곤충, 키메라 등 매혹적인 생명체가 살아 숨 쉬는 세계의 중심에는 메종의 상징적 동물, 팬더가 자리한다. 다이아몬드와 오닉스, 에메랄드로 완성한 팬더 네크리스의 독보적 존재감을 느껴보길 바란다.
문의 1877-4326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십시오.
stylechosun.co.kr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김하얀 khy@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신정임 sji@chosun.com
인턴 에디터 김지현 sjkjh00@gmail.com **디자인** 나나버나스튜디오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l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제판** 덕일 **인쇄** 타라티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 GRAFF.COM

GRAFF

THE MOST ROMANTIC JEWELS IN THE WORLD

보온성을 더해줄 코튼과 울을 혼방해 포근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스웨터 1백50만원 **로에베.**

카프 스킨 레더와 여유로운 미디엄 사이즈로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하는 토즈 Di 백 폴리오 미디엄. 49×31×16cm. 가격 미정 **토즈.**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44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콜 블루 선레이 다이얼을 적용한 스피릿 오브 빅뱅 스틸 콜 블루 다이아몬드 32mm 가격 미정 **위블로.**

레드 아게이트와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루는 쁘띠 유이 이어 스터드 3백78만원 **키린.**

부드러운 램 스킨으로 이루어져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인 골프 글러브 6만5천원 **어메이징크리.**

가벼운 폴리에스터 소재로 라운딩 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오리지널스 바이저 4만9천원 **아디다스골프.**

for her Selection

화사한 컬러와 위트 있는 디테일로 스타일을 완성할 스포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YOU TAE**

사피아노 가죽에 에나멜 디테일을 더하고 골프 티를 수납할 수 있도록 완성한 백 참 1백16만원 **프라다.**

슬림한 메탈 프레임으로 모던한 분위기를 더하는 빌 맥스 선글라스 32만원 **레이벤 by 에실로룩소티카.**

나일론 소재에 포켓 디자인으로 활동성은 물론 스타일까지 더한 사보나 카고 큐롯 스커트 45만원 **피레티골프.**

사우스포트의 해안 풍경과 로열 골프 헤리티지에서 영감받아 크림, 레드, 블루와 왕관 문양으로 완성한 킹스 가드 스태프 백 94만원대 **테일러메이드.**

18K 옐로 골드에 오렌지 사파이어와 브릴리언트 컷 만다린 가닛을 세팅해 생동감 있는 매력을 전하는 포스텐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프레드.**

설산 그래픽과 아이코닉한 로고, 카라비너로 완성한 레드 컬러 보틀 가격 미정 **샤넬.**

스웨이드 가죽과 테크니컬 패브릭으로 제작한 New Balance X Miu Miu 530 SL 스니커즈 1백84만원 **미우미우.**

로에베 02-3479-1785 **토즈** 02-3448-8233 **어메이징크리** 1670-3882 **위블로** 02-540-1356 **키린** 02-2118-6228 **프라다** 02-3442-1831 **혼마골프** 02-21410-1800 **샤넬** 080-805-9628 **에실로룩소티카** 02-501-4436 **아디다스골프** 1588-8241 **피레티골프** 0507-1308-0322 **프레드** 02-514-3721 **미우미우** 02-541-7443 **테일러메이드** 02-3415-7300

스타일리스트 **이승은** 에디터 **신정임**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레드 포스텐 커프 브레이슬릿** 메종의 기술력으로 완성한 꼬임 디테일의 18K 옐로 골드 밴드와 3.08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백29개를 파베 세팅한 밴드, 포스텐 모티브로 완성한 볼드한 스타일의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메시카 디바인 에니그마 하이 주얼리 파베 링**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밴드 3개를 탑처럼 쌓아 올려 건축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479-1556 **포멜라토 누도 펜던트 이어링** 18K 화이트 골드 및 로즈 골드에 스카이 블루, 런던 블루 토파즈와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계단식 구조로 배치해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030-8321-0441 **부쉐론 콰트로 클래식 다이아몬드 라지 뱅글** 쿠튀르적 감성의 그로그랭과 사랑의 상징인 더블 고드롱, 파리에 경의를 표하는 클루 드 파리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4개의 밴드가 건축물처럼 겹겹이 쌓여 웅장한 감성을 전한다. 5천7백20만원. 문의 080-822-0250 **쇼메 비 드 쇼메 포 핑거 링** 로즈 골드 소재의 육각형 모양 허니콤 모티브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정교하게 맞물려 구조적인 느낌을 선사하며 독창적인 스타일 연출을 돕는다. 가격 미정. 문의 1670-1180 **그라프 트라이벌 컬렉션 네크리스** 태양 광선의 장엄한 아름다움과 생명, 에너지,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눈부신 모티브를 화이트 골드와 총 46.75캐럿의 오벌·페어 셰이프·라운드·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로 섬세하게 표현한 네크리스 가격 미정. 문의 02-2150-2320 **키린 울루 이터너티 링** 끝없는 순환을 상징하는 울루 모티브를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2개의 밴드 프레임에 차곡차곡 쌓아 완성해 유니크함을 선사한다. 1천97만원. 문의 02-6905-3453 **티파니 티파니 T 트루 와이드 링** 정교하고 탄탄하게 세운 건축물처럼 균형 잡히고 깔끔한 그래픽적인 라인의 T 모티브 18K 옐로 골드를 연결해 하나의 밴드를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에디터 **성정민**

Precious Structure

예술적 건축물을 능가하는 주얼리의 정교함과 견고함.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아시스턴트 **김지현**

부드러운 스웨이드 카프 스킨에 여유로운 실루엣과 벨트 디테일을 더한 디올 맨 노르망디 토트백. 41×29×17cm 가격 미정 **디올.**

18K 로즈 골드에 퍼플 제이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유이 스몰 네크리스 4백94만원 **키린.**

스틸 케이스와 다이얼의 선명한 컬러가 스포티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태그호이어 아쿠아레이서 프로페셔널 300 데이트 36mm 6백만원대 **태그호이어.**

알루미늄 소재의 헤드와 안정적인 스트로크를 돕는 설계가 돋보이는 Spider Tour X 숏 슬랜트 48만원 **테일러메이드.**

키 링 고리와 지퍼로 골프 공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케이스 1백60만원 **프라다.**

오픈 칼라 디자인의 실라스 스트라이프 폴로 니트 가격 미정 **제이린드버그.**

for him Selection

클래식한 웨어부터 라운딩의 완성도를 높여줄 기어까지, 스포츠 라이프를 즐기는 남자를 위한 셀렉션.

PHOTOGRAPHED BY **KIM YOU TAE**

통기성을 고려한 디테일을 적용해 쾌적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남성 벤틸레이션 엘리트 햇 11만9천원 **피레티골프.**

매끄러운 카프 스킨으로 발을 감싸주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패스트 트랙 옥스포드 가격 미정 **벨루티.**

넉넉한 수납공간과 손쉽게 사용 가능한 지퍼, 편안한 스트랩과 패딩이 특징인 삭 드 골프 수플. 31×80×20cm, 가격 미정 **루이 비통.**

근접 초점 기능을 통해 6피트 거리에서도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라이카 울트라비드 컴팩트 컬러라인 1백99만원 **라이카.**

메탈과 아세테이트 프레임, 폴리카보네이트 렌즈를 사용해 눈을 보호해주는 마스크 프레임 선글라스 77만5천원 **구찌.**

경량 나일론 소재에 듀얼 액세스 구조와 확장 기능을 갖춰 이동과 수납이 편리한 레져 듀얼 액세스 확장형 캐리온. 35.5×55×23cm 1백30만원 **투미.**

100% 올 소재에 립스톱 특유의 질감을 살려 야외 활동 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트라우저 가격 미정 **폴 스미스.**

총 13.8캐럿 카보숑 애미시스트를 중심으로 80개의 브릴리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빵 드 쉬크르 애미시스트 핑크 골드 링 가격 미정 **프레드.**

디올 02-3480-0104 **키린** 02-2118-6228 **제이린드버그** 02-546-1996 **테일러메이드** 02-3415-7300 **프라다** 02-3442-1831 **태그호이어** 02-3479-6021 **피레티골프** 0507-1308-0322 **벨루티** 02-536-1895 **루이 비통** 02-3432-1854 **라이카** 070-7510-7822 **폴 스미스** 1644-4490 **구찌** 02-3452-1521 **프레드** 02-514-3721 **투미** 02-539-8160

스타일리스트 **이승은** 에디터 **신정임**

Fresh Kicks

스포티한 실루엣부터 과감한 소재와 컬러 조합이 돋보이는 디자인까지, 지금 주목해야 할 스니커즈를 한자리에 모았다.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파 카프 스킨과 스웨이드 십 스킨을 조합하고, 측면에 아이코닉한 H 모티브를 적용한 제트(Jet) 스니커즈 1백70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앤티크 가공한 나파 가죽 소재에 후크 장식의 레이스와 핸드메이드 스티칭을 더하고, 얇은 러버 솔로 가벼운 착용감을 구현한 콜랩스 스니커즈 1백80만원 **프라다.** 문의 02-3442-1831. 1990년대 빈티지 러닝화에서 영감받은 실루엣에 물결 패턴의 러버 아웃솔을 적용한 LV 드롭 300 스니커즈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블랙과 옐로 컬러의 스웨이드와 테크니컬 패브릭이 조화를 이루며, 토 부분을 가로지르는 엘라스틱 웨빙과 슬림한 솔로 실루엣을 완성한 펜디 랩 스니커즈 1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14-0652. 낮고 날렵한 형태가 돋보이며, 부드러운 스웨이드와 측면의 로고 장식으로 스포티한 포인트를 준 리파리 스니커즈 1백29만원 **돌체앤가바나.** 문의 02-3442-6888. 스퀘어 라스트로 날렵한 실루엣을 연출하고, 뱀가죽에서 영감받은 패턴과 빈티지한 오니츠카 타이거 스트라이프를 입힌 멕시코 66 스퀘어 가격 미정 **오니츠카 타이거.** 문의 080-929-3535. 부드러운 카프 스킨과 램 스킨으로 제작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며, 레이스 부분 메탈 로고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더 플랫 스니커즈 1백35만원 **셀린느.** 문의 1577-8841 에디터 **신정임**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INSIGHT

The Brilliance of Love

인생에서 가장 로맨틱한 순간을 위해 그라프가 새로운 브라이덜 컬렉션을 공개했다. 웨딩 밴드, 인게이지먼트 링부터 이어링, 티아라 등까지 하우스가 직접 커팅하고 폴리싱한 다이아몬드로 광채를 극대화했다. 그중에서도 아이콘 링은 이름처럼 아이콘 세팅이 돋보이는 디자인이다. 큼직한 센터 스톤을 섬세하게 감싼 파베 다이아몬드의 빛이 밴드까지 이어져 어느 각도에서든 눈부신 광채를 선사한다. 단독으로 착용하거나 이터니티 컬렉션의 가드 링과 레이어드하면 특별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완성할 수 있다. 문의 02-2150-2320

Beauty of Imperfection

프라다 2026 F/W 쇼는 레이어링을 중심축으로 전개되었다. 그 속에서 이미 정립된 완벽함의 미학 대신 변화와 삶이 남긴 흔적, 그리고 미완의 아름다움에 주목했다. 그중 벨라 하디드가 착용한 10번 룩은 컬렉션의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룩 중 하나였다. 얼핏 보면 직관적이고 익숙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반된 요소가 공존한다. 남성적 코드와 연약함, 실용과 쇠퇴, 보호와 노출 사이에서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이 룩의 마모된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프라다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21시간의 제작 시간을 들여 완성했다. 오랜 세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마모된 것이 아니기에 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작업 공정이 필요하다. 최종 완성품에는 제작 과정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불완전함과 기억, 변화를 진정성의 표지로 승화한 프라다 장인 정신의 독창적 표현을 보여준다. 문의 080-522-7199

Fall on Tips

깊이감 있는 컬러부터 부드러운 뉴트럴 톤까지, 가을 무드를 손끝에 담아줄 네일 4.

(위부터 차례대로) **샤넬 르 베르니 #153 품피에** 밝고 선명한 레드 컬러가 손끝에 강렬한 포인트를 준다. 13ml 4만9천원. 문의 080-805-9638
에르메스 뷰티 레 맹 에르메스 네일 에나멜 80 그리 에투프 린넨 베이지가 감도는 그레이 컬러로 차분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15ml 8만원. 문의 02-310-5174 **크리스찬 디올 뷰티 디올 베르니 #047 뉘 1947** 농밀한 다크 버건디 컬러가 손끝에 우아한 존재감을 부여한다. 10ml 4만7천원. **구찌 뷰티 베르니 아 옹글 #애너벨 로즈 212** 부드러운 크리미 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은은한 생기를 더한다. 10ml 4만4천원. 문의 080-850-0708
포토그래퍼 **박재용** 인턴 에디터 **김지현**

It's a Seoul Edition!

루이 비통이 서울 도산 스토어 익스클루시브 에디션 'LV 스니커리나'를 공개했다. 유연한 램 스킨과 카프 스킨을 조합한 어퍼에 화이트와 로즈 클레어 컬러를 적용했으며, 볼륨감 있는 투톤 슈레이스가 특징이다. 슈레이스에는 골드 톤 팁과 LV 이니셜, 모노그램 플라워 등 메종의 시그너처를 활용한 참 장식을 달고, 가벼운 러버 아웃솔로 착용감을 높였다. 서울 도산 스토어에서 우선 출시한 뒤 국내에서만 단독으로 판매한다. 1백82만원대. 문의 02-3432-1854

Bag of the Moment

샤넬이 2026 F/W 컬렉션을 통해 새로운 실린더 백을 선보인다. 콤팩트한 원통형 실루엣에 긴 스트랩을 장착해 숄더백과 크로스 보디 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골드 톤 버튼과 체인 디테일로 하우스의 상징적 요소를 담았다. 특히 소가죽 표면에 크로커다일 패턴을 정교하게 구현해 입체적인 질감과 은은한 광택을 살린 것이 특징. 간결한 형태와 실용적인 사이즈로 다양한 스타일링에 활용하기 좋다. 문의 080-805-9638

House of Gold

메종 피아제에게 골드는 단순한 소재를 넘어 모든 창조에 영감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다. 올해 피아제는 메종의 유산을 이어가는 새로운 캡슐 컬렉션 '피아제 글로우(Piaget Glow)'를 선보인다. 로즈·옐로·화이트 골드로 완성한 세 가지 링은 피아제만의 정교한 골드 세공 기법과 다이아몬드 광채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다. 로즈 골드엔 메종의 시그너처 인그레이빙 기법인 데코 팰리스(décor palace) 기법을 적용했으며 옐로 골드엔 이국적인 비늘을 연상시키는 텍스처에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해 뚜렷한 개성을 드러낸다. 화이트 골드 글로우 링에는 비대칭적인 웨이브 형태로 골드의 유려한 곡선미를 강조하고, 흩뿌린 듯 세팅한 다이아몬드를 통해 빛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했다. 각 링은 단독으로도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레이어링을 통해 다채로운 스타일을 연출하며 일상 속 새로운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문의 1877-4275

Forever in Color

티파니앤코가 하우스의 컬러 헤리티지를 담은 새로운 하드웨어 컬렉션을 선보인다. 하우스를 상징하는 블루 컬러부터 다양한 레거시 컬러 젬스톤에 이르기까지, 컬러는 약 2세기에 걸쳐 티파니를 정의해온 중요한 디자인 언어 중 하나다. 이번 신제품인 하드웨어 이어링은 이러한 헤리티지를 재해석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과 미국의 원예가이자 주얼리 컬렉터였던 레이철 랜버트 버니 멜론이 소장했던 티파니 주얼리의 컬러 팔레트에서 영감받았다. 따뜻한 옐로 골드 링크에 선명한 블루 컬러의 터쿼이즈와 은은한 광택이 감도는 아코야 진주를 세팅해 생동감 있는 색채 대비를 완성했다. 네크리스와 이어링, 브레이슬릿 등을 포함해 총 아홉 가지 디자인으로 구성된다. 문의 02-1670-1837

Exhibition

롯데뮤지엄 〈이강소: 일어나고 사라지는〉展

초가을 아트 주간을 앞두고 지난달 중순 롯데뮤지엄에서 막을 올린 〈이강소: 일어나고 사라지는(Emergence and Dissolution)〉은 반세기 넘게 한국 현대미술의 실험을 이끌어온 작가의 작업 세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경험하게 한다. 회화는 물론 조각과 설치, 판화, 사진, 영상까지 아우르는 1백50여 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화선지와 먹을 사용한 한국화 신작도 처음 공개됐다. 전시명 '일어나고 사라지는'은 작품을 마주하는 순간마다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고 변화하는 그의 작품 세계를 함축한다. 단아하면서도 기백이 흐르는 이강소표 회화로 시작하는 전시는 초입에서 대표작 '청명'을 원작 규모의 LED 화면으로 옮긴 신작과 거울을 통해 실재와 이미지의 경계를 묻는다. 낙동강에서 옮겨온 갈대를 거울과 함께 배치한 설치 작업 '여백'은 처음에는 틈 사이로 드러나지만, 다시 마주했을 때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구성했다. 이어 흙을 던지는 행위와 중력, 우연의 흔적을 받아들인 '던지기 조각', 반복적인 붓질이 남긴 드로잉과 '청명', '무제', '섬에서' 등의 회화가 펼쳐지고, 닭이 석고 가루 위에 남긴 흔적을 작업으로 삼아 1975년 파리비엔날레에서 선보였던 '무제-75031'도 접할 수 있다. 후반부 아카이브에서는 작업 도구와 사진, 기록물을 통해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작업실에서 조각을 천으로 감싸 보관하던 모습에서 착안한 '유령조각'을 만난다. 마지막에는 1973년 첫 개인전에서 선보인 '소멸'이 기다린다. 당시 선술집을 전시장에 들여와 운영하며 사람과 시간, 관계를 작품으로 끌어들였던 실험은 이번 전시에서 평상과 함께 관객이 머물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전시의 끝에는 "안 하던 짓을 하세요"라는 작가의 메시지를 마주친다. "예상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만나는가"를 작업을 관통하는 질문으로 꼽아온 작가가 건네는, 익숙한 방식에 머물지 말고 우리 삶의 새로운 장면과 의미를 만나보라는 권유처럼 다가온다. 9월 17일에 이어 오는 10월 15일에도 진행되는 연계 프로그램 '미드위크 뮤지엄'에서는 프라이빗 큐레이터 투어와 함께 '소멸'의 주막에서 백세주와 술빵을 맛보고 공기놀이를 즐길 수 있고, 어린이 대상 주말 교육 프로그램도 별도로 꾸려진다. 전시는 11월 1일까지.
글 **고성연**

〈이강소: 일어나고 사라지는〉 전시 모습, 롯데뮤지엄, 2026. Photo by 박찬우
이미지 제공_롯데뮤지엄

Locks & Charms

헤어스타일에 작은 변화를 주는 스크런치부터 핀과 클립까지, 룩에 감각적인 포인트를 더해줄 헤어 액세서리.

(위부터 차례대로) 골드 컬러 알루미늄 소재로 완성한 트리 마이용 헤어 클립 1백1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레터링을 유려한 형태로 풀어내 유니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가격 미정 **골든구스**. 문의 02-519-2937. 풍성한 헤어도 가볍게 묶을 수 있으며 메탈 시그너처 각인으로 디테일을 가미한 스크런치 63만원 **샐린느**. 문의 1577-8841. 스퀘어 크리스털로 장식해 화려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버건디 트레 비비에 헤어 클립 가격 미정 **로저 비비에**. 문의 02-3448-0442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이탈리아 인문기행_1 토스카나 편_두 도시 이야기

붉은 백합의 피렌체, 순백 대리석의 카라라

이탈리아를 여러 차례 여행했지만, 정작 처음 밟아보는 토스카나의 땅이라 묘한 설렘이 앞섰다. 르네상스의 빛이 가장 눈부시게 머무는 피렌체(Firenze)에서 시작해 아푸아네 알프스의 흰 산을 품은 카라라(Carrara)로 향하는 짧지만 밀도 높은 여정. 이토록 다른 두 도시의 풍경이 한 여행길에서 이어진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피렌체가 붉은 백합을 상징으로 품은 꽃의 도시라면, 카라라는 순백의 대리석과 채석장의 산을 품은 돌의 도시다. 하나는 아름다움을 꽃피운 도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아름다움을 가능하게 한 도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이 두 도시를 이해하려면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이탈리아'라는 틀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은 하나의 나라로 이어져 있지만, 이탈리아반도는 오랫동안 여러 정치 세력이 공존하고 경쟁하는 땅이었다. 중세를 거쳐 성장한 도시국가들의 경쟁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찬란한 문화적 결실로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피렌체는 상업과 금융으로 축적한 부를 예술과 건축으로 돌려놓으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도시로 떠올랐다. 두오모의 붉은 돔 아래에서 브루넬레스키를 만나고, 거리와 미술관 곳곳에서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름을 마주치는 도시 아닌가.

카라라 역시 그 작은 정치 세계 가운데 하나였다. 이웃 도시 마사(Massa)와 결합해 독자적 주권을 지닌 작은 나라로 존재했다. 훗날 '마사-카라라'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소국의 기반에는 산속에 풍부하게 묻혀 있던 대리석이 있었다. 카라라에서 돌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었다. 도시를 먹여 살린 산업이었고, 세대를 이어온 기술이었으며, 사람들의 삶을 움직인 노동이었다. 카라라의 핏줄 같은 대리석은 피렌체를 비롯한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로 흘러갔고, 예술가들의 손에서 우리가 아는 미의 결정체로 거듭났다. 그래서 피렌체에서 카라라로 향하는 길은 단순히 유명 도시에서 낯선 도시로 이동하는 여정이 아니다. 완성된 아름다움에서 그 아름다움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다.

피렌체(Firenze)
르네상스의 빛을 따라 걷다

산타 마리아 노벨라 기차역에 도착해 숨을 고르며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을 한입 베어 물었다. 역을 빠져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피렌체 풍경은 의외로 평범했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거리와 오래된 건물, 카페와 상점. 이탈리아의 이름난 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익숙하게 마주치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몇 걸음 옮기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거리를 따라 걷다 보니 19세기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건축가 주세페 멘고니가 설계한 건물 안에 자리한 중앙시장이 나타났다. 다시 오래된 건물의 모퉁이를 돌아 골목을 따라가자, 어느 순간 눈앞에 거대한 돔 하나가 솟아올랐다.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그러니까 두오모의 붉은 돔이었다. 조금 더 다가가자 장면은 더욱 선명해졌다. 전반적으로 테라코타 계열의 색조가 감도는 도시 풍경 속에서 돔을 중심으로 대성당의 몸체가 펼쳐지고, 한쪽에는 팔각형의 산 조반니 세례당이, 그 뒤로는 조토의 종탑이 시야에 들어오는데, 어찌 보면 하나의 커다란 조각 같다.

1 붉은 테라코타 지붕이 빼곡하게 들어선 피렌체 구시가지의 항공 사진.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두오모)과 산 조반니 세례당 등이 중심에 자리한다.
2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정면과 브루넬레스키의 붉은 돔, 산 조반니 세례당, 종탑이 어우러져 피렌체 두오모 광장의 풍경을 이룬다.
3 왼쪽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브루넬레스키 돔 위에 있는 란테르나(채광탑), 그리고 오른쪽은 팔라초 베키오(베키오 궁전)의 아르놀포 탑(Torre di Arnolfo). 탑 꼭대기에는 피렌체를 상징하는 사자 형상의 풍향계와 사자 앞발 사이 백합 장식이 있다.
Photo by Mauro Sani

#돌 위에 피어난 도시의 자부심

스탕달의 말이 떠오를 만한 순간이다. "바로 저기가 단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았던 곳이야! 이 고결한 도시, 중세의 여왕이여! 바로 이 도시에서 문예가 다시 부흥하지 않았는가."

스탕달이 피렌체의 산타 크로체에서 경험한 강렬한 감동은 훗날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뛰어난 예술 작품이나 아름다운 건축물을 마주했을 때 강한 신체적, 정신적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가리킨다. 신드롬까지는 아니어도, 피렌체의 거리를 걷다 보면 한 시대의 예술과 지성이 도시 곳곳에 새겨져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물론 이 풍경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을 리 없다. 특히 거대한 성당을 짓는 일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다. 상업과 금융으로 부를 축적한 도시의 힘이 건축과 예술에 투입되었고, 길드와 유력 가문, 교회는 도시의 경쟁력을 건축물로 보여주려 했다. 성당을 세우고, 더 높은 종탑을 올리고, 더 아름다운 문을 만드는 일은 곧 도시의 자부심과 경쟁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완공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도시의 숙제로 남아 있던 두오모의 돔에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도전했다. 당시 누구도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거대한 돔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 문제를 풀어낸 순간, 피렌체의 건축은 새로운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리고 세례당에서는 로렌초 기베르티를 비롯한 예술가들의 경쟁이 펼쳐졌다. 특히 기베르티의 청동문은 조각을 건축의 장식에서 하나의 독립된 예술적 성취로 끌어올린 장면으로 남았다.

돌을 다루는 방식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세례당과 종탑을 장식한 흰색 카라라 대리석과 초록빛 프라토 대리석은 단순한 건축 재료가 아니라 건축의 색과 리듬을 만들어낸다. 흰색과 초록색의 기하학적 문양, 정교하게 다듬은 표면은 돌 자체를 시각적 언어로 바꾸어 놓았다.

4 우피치 미술관에서 만난 산드로 보티첼리의 대작 '프리마베라'(1480년대 초). 르네상스 회화를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다.
5 산 조반니 세례당 외벽. 카라라산 흰 대리석과 프라토산 녹색 대리석을 기하학적 패턴으로 조합했다.
6 우피치 미술관과 베키오 궁전을 연결하는 바사리 회랑. 1565년 조르조 바사리가 코시모 1세의 명으로 설계했다. Photo by SY Ko
7 우피치에서 바라본 피렌체의 시청사 팔라초 베키오와 아르놀포 탑. 팔라초 베키오가 자리한 시뇨리아 광장은 오랫동안 피렌체의 정치적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8 아르노강을 가로지르는 베키오 다리. 피렌체의 대표적인 역사적 다리로, 다리 위에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
9 피렌체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오라 다리아 (Ora d'Aria)의 감각적인 인테리어. 마르코 스타빌레 셰프가 토스카나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이 레스토랑은 와인 페어링 메뉴로도 유명하다. '오라 다리아'는 이탈리아어로 '바람을 쐬는 시간'을 뜻하며,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옛 피렌체 감옥 맞은편에 자리했던 데서 붙은 이름.
10 19세기 역사적 건축물을 개조한 부티크 호텔 팔라초 카스트리 1874(Palazzo Castri 1874) 파사드. 중정 정원과 스파 시설을 갖추었으며, 호텔 내 플로렌티아 카페(Florentia Café)에서 미식도 즐길 수 있다.
※ 1, 3 이미지 제공_토스카나 관광청 ※ 2, 4, 5, 7, 9 Photo by Dakyo Oh ※ 6, 8, 10 이미지 Photo by 고성연

취재 협조_ENIT S.p.A.-이탈리아 관광청, www.enit.it / www.italia.it, 토스카나 관광청(www.turismo.toscana.it)

#우피치에서 마주한 시간의 얼굴들

두오모를 뒤로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성당과 세례당, 종탑에서 본 예술의 경쟁은 이제 도시를 움직였던 또 다른 힘, 권력의 공간으로 이어진다. 바로 1565년 코시모 1세의 명으로 조르조 바사리가 만든 바사리 회랑. 베키오 궁전과 우피치를 잇고, 아르노강을 건너 피티 궁전까지 이어지는 이 회랑은 메디치 가문이 도시의 거리와 사람들 사이를 지나치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통로였다. 권력자는 도시의 한복판을 걸어 다니면서도 군중과 섞이지 않을 수 있었다. 피렌체의 건축에는 미와 권력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 의미를 되새기다 보니 어느새 우피치에 닿았다. 우피치는 미술관이라기보다 황홀경에 가까웠다. 방에서 방으로 이어지는 전시실마다 시간이 더디 가기를 기도할 정도로, 눈길을 붙잡는 작품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거의 뛰어다니다시피 하는 바쁜 행보 속에도 어떤 작품은 절로 발걸음을 멈춰 세운다. 산드로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1480년대 초)와 '비너스의 탄생'(1485년경) 같은 대작 앞에서는 얼어붙듯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게 된다. 사실 책이나 화집, 엽서와 각종 인쇄물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보아온 그림들이다. 코트 안감에까지 새겨질 만큼 익숙한 이미지였다. 그런데 실제 원작 앞에 서니 경이로웠다. 화면의 크기와 색채, 인물의 표정과 디테일이 한꺼번에 다가왔다. 익숙했던 이미지가 비로소 하나의 작품으로 눈앞에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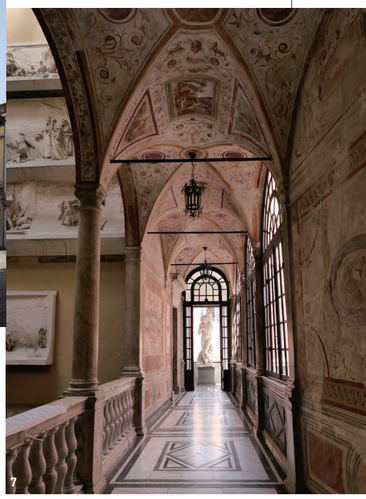
우피치의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벽 위쪽을 빼곡하게 채운 초상화들과 마주친다. '조비아나 연작'이라 불리는 이 초상화 컬렉션만 해도 5백 점이 넘는다. 수많은 얼굴 사이를 지나 다시 작품들을 바라보는데, 뜻밖의 영상 작품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고인이 된 현대미술의 거장 빌 비올라의 'Self Portrait – Submerged'(2013)였다. 물속에 잠긴 작가 자신의 모습을 담은 영상 자화상이다. 수백 년 전 초상화 사이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한 인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토록 위세를 누렸던 메디치도, 벽에 얼굴을 남긴 수많은 인물들도 문득 멀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묘한 감정을 안은 채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르노강이 흐르고, 그 위로 베키오 다리가 놓여 있었다. 다시 도시 안쪽으로 걸음을 옮겨 시뇨리아 광장에 닿았다. 광장 한쪽에는 피렌체공화국의 정치적 중심이었던 베키오 궁전이 서 있고, 그 앞에 조각을 몰라도 익숙한 모습의 한 남성 전신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길거리를 스치는 모든 이들을 반겨주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복제품이다. 원작은 아카데미아 미술관으로 옮겨졌지만, 1504년 처음 세워졌던 자리에는 지금도 다비드가 남아 있다.

메디치 가문이 후원한 수많은 예술가 가운데 미켈란젤로만큼 피렌체의 역사와 예술을 깊이 새긴 인물도 드물다. 젊은 시절 메디치의 후원을 받으며 성장한 그는 훗날 피렌체를 대표하는 조각가가 되었고, 그의 '다비드'는 한 도시가 예술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지를 상징하는 작품이 되었다.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에서 인간의 몸을 끌어낸 이 조각은 그렇게 피렌체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 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비드를 바라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따라온다. 이 거대한 대리석은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그 답을 찾아가는 길이 바로 다음 여정, 카라라였다.

글 **고성연**(피렌체 현지 취재)



카라라(Carrara)
백색 잔흔 너머의 아름다움

피렌체에서 보았던 건축과 예술의 융성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개인의 부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그것을 건축과 예술에 투자하는 일이 명예와 권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도시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감이 생겨났다. 피렌체의 건축가와 조각가는 이탈리아 각지에서 돌을 가져와 서로 다른 색과 질감을 조합했고, 그 돌들은 도시의 건축을 근사한 색채 팔레트로 만들었다. 두오모와 세례당 외벽을 장식한 흰색과 녹색, 분홍빛 돌은 피렌체 특유의 색채를 만들어냈고, 그 가운데 눈부신 흰색을 이루는 아푸안 대리석은 카라라를 비롯한 산지에서 왔다.

미켈란젤로 역시 그 시대가 만들어낸 풍요로운 후원의 수혜자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대리석을 찾아 카라라를 자주 오갔다. 피렌체 북서쪽에 위치한 카라라는 고대 로마 시절부터 유명했고,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백색 대리석 산지다. 미켈란젤로를 비롯해 도나텔로, 베르니니, 카노바 등 수많은 조각가들의 작품에 이곳의 대리석을 사용했다.

그 명성은 오늘날에도 이어진다. 2022년 9월 문을 연 밀라노의 폰다치오네 루이지 로바티 미술관 입구에는 조각가 주세페 두크로가 제작한 설립자 루이지 로바티의 실물 크기 조각상이 서 있다. 티끌 하나 없이 깔끔한 순백의 조각 옆에는 '의사이자 기업가 루이지 로바티', 그 아래에는 '카라라산 백색 대리석'이라고 적혀 있다. 르네상스의 미켈란젤로에서 오늘날의 두크로까지, 시대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카라라의 흰 돌. 예술이 된 그 돌의 근원을 찾아, 이제 카라라로 향한다.

#돌산을 덮고 있는 날카로운 '대리석 캔버스'

한여름의 카라라는 몹시 뜨거웠다.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곧바로 8인승 메르세데스 밴에 올라 아푸아네 알프스의 산속 채석장으로 향했다. 산길로 접어들어 모르타롤라(Mortarola)에 닿자 길가에 대리석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카라라 사설 대리석 철도의 기관사로 일하다가 독학으로 조각가가 된 마리오 델 사르토(Mario del Sarto, 1888~1955)의 작품이었다. 산에서 캐낸 거대한 돌을 싣고 내려오는 기관차를 몰던 그는 철도가 사라진 뒤 그 일을 그만두고, 마흔일곱의 나이에 조각을 시작했다. 평생 운반하던 대리석을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깎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이 일하며 오갔던 산길 주변에 남겨진 그의 작품 옆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예술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자, 그 세계의 일원이 아니다.'

다시 밴에 올라 산속 더 깊이 들어갔다. 서쪽 토라노(Torano) 채석 분지에 들어서자, 얼마 지나지 않아 산 한쪽이 통째로 잘려나간 듯 거대한 백색 암벽과 층층이 파고든 절단면,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중장비가 나타났다. 카바 올모(Cava Olmo)였다. 하얀 대리석과 회색 암벽, 흙과 돌가루가 뒤섞인 색조는 마치 독일 신표현주의 거장 안젤름 키퍼의 캔버스를 산에 두른 것 같았다. 피렌체에서 본, 매끈하게 다듬은 대리석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예술이 되기 전의 돌도 그 자체로 예술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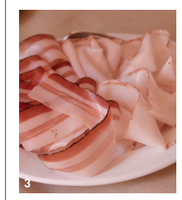
#콜로나타, 돌과 바퀴, 그리고 식탁

방향을 바꾸어 아푸아네 알프스의 동쪽 계곡, 콜로나타(Colonnata)로 향했다. 마을의 작은 광장에 들어서자 대리석으로 만든 수레와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산에서 캐낸 돌을 싣고 내려오던 수레였다.

피렌체가 꽃과 번영의 이미지를 품은 '붉은 백합(Giglio Rosso)의 도시'라면, 카라라는 '돌과 바퀴의 도시'다. 카라라라는 이름의 어원에는 여러 설이 있지만, 고대 언어에서 돌을 뜻하는 말에서 비롯됐다는 설과 'Cararia', 곧 수레가 다니는 곳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전해진다. 실제로 카라라의 문장에도 수레바퀴가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는 'Fortitudo mea in rota', 즉 '나의 힘은 바퀴에 있다'는 의미의 문구가 적혀 있다. 대리석을 산에서 끌어내리고 세상으로 실어 나르는 일이 이 도시의 힘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대리석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일상에 들어와 있었다. 금강산도 식후경! 콜로나타의 대표 음식인 라르도 디 콜로나타(Lardo di Colonnata)는 돼지의 등 지방을 향신료와 함께 카라라산 대리석으로 만든 통인 콘카(conca)에 넣어 숙성한다. 산에서 캐낸 돌이 한편에서는 조각의 재료가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음식을 익히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마을 골목의 벽에 붙어 있는 '돼지 포스터'는 라르도에 대한 자부심을 재미나게 담고 있다. 파르마와 시에나 출신이라는 두 돼지가 라르도를 만들어주는 알제(Alge)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광고였다. 수레가 산에서 돌을 내려보내던 노동의 힘을 보여준다면, 라르도는 그 돌을 다시 사람들의 식탁으로 끌어들이는 생활의 힘을 보여주는 듯했다.



1 카라라의 카바 올모 채석장. 계단식으로 깎아낸 흰 암벽과 채석장 곳곳의 중장비가 어우러져 독특한 풍경을 이룬다.
2 카라라 사설 대리석 철도의 마지막 기관사로 알려진 마리오 델 사르토(Mario Del Sarto, 1888~1955)의 조각 작품. 철도 폐선 뒤 마흔일곱의 나이에 독학으로 조각을 시작했다.
3 로칸다푸아나(Locandapuana) 식당에서 맛본 라르도 디 콜로나타(오른쪽)와 판체타 디 콜로나타(왼쪽). 카라라산 흰 대리석 통(conca)에서 숙성한 두 가지 전통 살루미다. **4** 카라라 산악 지대의 콜로나타 마을에서 만난 야외 대리석 조각 작품.

#판티스크리티, 돌을 둘러싼 사람들의 삶

오후의 작렬하는 태양을 뒤로하고 콜로나타를 떠나 향한 곳은 중간 지대인 미셀리아(Miseglia). 산길을 따라가자 거대한 석조 아치교가 계곡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폰티 디 바라(Ponti di Vara)였다. 19세기 말 대리석을 실어 나르던 철도의 교량이다. 깊은 계곡을 가로지르는 석조 아치와 터널을 지나자, 산에서 캐낸 돌을 열차로 운반하던 시대의 모습이 눈앞에 겹쳐졌다. 철도는 1964년 폐선됐지만, 교량과 터널 등 그 흔적은 지금도 산길 곳곳에 남아 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대리석을 채굴해온 역사적인 채석장인 카바 벨지아(Cava Belgia)를 지나 판티스크리티(Fantiscritti) 일대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공간을 만났다. 판티스크리티의 카바 뮤제오(Cava Museo)는 대리석을 캐낸 채석장이 아니라, 이곳에서 일했던 채석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을 기억하는 야외 박물관이었다. 채석 도구와 장비는 물론이고, 여러 가족이 함께 살던 소박한 채석공의 집까지 재현해놓았다. 한 채석공의 아들인 월터 다네시(Walter Danesi)가 이곳의 기억을 보존하는 데 힘을 쏟았고, 덕분에 대리석을 세상에 내보내기까지 그 뒤에서 힘겹지만 꿋꿋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이 공간에 남아 있다. 이 산을 오르내리며 일했던 이들에게 대리석은 예술의 재료이기 전에 생계를 걸어야 하는 삶의 터전이었다.

판티스크리티 분지는 미켈란젤로 예술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 숨어 있는 곳이었다. 흔히 '다비드'를 미켈란젤로만의 창작물로 기억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처음부터 온전한 돌이 아니었다. 그보다 40년쯤 전 아고스티노 디 두초가 작업을 시작했고, 뒤이어 안토니오 로셀리노도 손을 댔지만 작업은 중단됐다. 거대한 대리석은 오랫동안 방치된 채 '일 지간테(Il Gigante)', 곧 '거인'이라 불렸다. 스물여섯 살의 미켈란젤로는 이미 다른 조각가들의 손길이 남은, 작업하기 쉽지 않은 이 돌을 맡았다. 앞선 작업의 흔적과 한계를 피해가며 그는 새로운 돌을 덧붙이지 않고, 주어진 한 덩어리 안에서 다비드의 형상을 끌어냈다. 버려진 돌에 갇혀 있던 형상을 '해방'시킨 셈이다.

서쪽 계곡에서 만났던 노기관사 마리오 델 사르토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 '예술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자, 그 세계의 일원이 아니다.' 어쩌면 이 문장은 죽은 듯 놓여 있던 대리석 앞에서 기어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안에서 새로운 형상을 찾아낸 조각가들을 향한, 시대를 초월한 헌사였는지도 모른다.

산에서 도시로, 다시 사람의 손으로

채석장을 빠져나와 카라라 시내로 갔다. 카라라는 그저 명석 산지가 아니다. 로마 시대에 뿌리를 둔 카라라는 대리석을 다루는 오랜 기술과 예술의 전통을 이어온 도시로, 유서 깊은 도심에는 돌과 함께 살아온 시간과 자부심이 배어 있다. 구시가지에서 남서쪽으로 가면 바닷가 지역인 마리나 디 카라라가 펼쳐지고, 도시 뒤편으로는 아푸아네 알프스의 거친 산세와 채석장이 이어진다. 흰 대리석의 산과 초록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길은 사람들을 산으로 불러들이고, 산에서 내려온 돌은 도시의 건축과 예술, 디자인 속으로 들어간다.

도심 풍경은 어쩐지 정겹게 보였다. 알베리카 광장과 두오모, 미켈란젤로의 집을 지나며 만났던 흰 대리석은 단순한 건축 재료가 아니었다. 산에서 떼어낸 돌이 오랜 세월 도시의 표정을 만들고,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었다. 그 전통은 오늘날에도 이어진다. 2026년 여름, 카라라의 역사 지구에서는 제10회 화이트 카라라(White Carrara)가 열렸다. 'Design Lives in the City'를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는 특정한 전시장이 아니라 역사 지구 곳곳을 무대로 삼아, 30여 명의 국제 디자이너와 지역 대리석 기업이 대리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산에서 캐낸 대리석이 이제는 동시대의 디자인과 만나 도시의 풍경을 다시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은 아르누보 양식의 맨션을 개조한 마리나 디 카라라의 부티크 호텔로 대리석 채석장 투어도 운영하는 도리데 스위트에서 묵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카라라 시내로 향해, 도시의 역사와 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미술 아카데미(Accademia di Belle Arti di Carrara)를 둘러봤다. 오래된 팔라초의 짙은 색 천장과 벽면의 프레스코, 대리석 기둥과 바닥 사이로 하얀 석고상들을 품은 이 고아한 공간은 1769년 설립된 이래 카라라의 조각 교육을 이어온 미술 아카데미다. 카노바와 로렌초 바르톨리니, 베르텔 토르발센 등의 석고 작품, 다양한 책과 스케치가 남아 있어, 대리석으로 완성되기 전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마지막 방문지는 실제 작업장인 카라라 조각가 협동조합(Cooperativa Scultori di Carrara). 세계적인 조각가들의 작품을 현실의 돌로 만들어온 이곳에는 대리석 원석과 석고 원형, 각종 기계와 도구가 자리하고 있었다. 작업 과정을 설명하던 한 전문가는 "우리는 여전히 다 손을 써서 합니다"라며 싱긋 웃었다. 조각가로 데뷔해도 될 듯한 솜씨였지만, 그는 그저 돌 만지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담담했다. 기계가 돌을 움직이고 다듬는 시대에도 마지막 형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손이었다.

피렌체에서 사람이 완성한 미의 극치를 보았다면, 카라라에서는 그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세계가 여전히 숨 쉬고 있다. 산은 깎여나가고, 돌은 도시로 흘러가고, 사람의 손은 그 돌에 다시 형상을 새긴다. 그 과정이 남긴 절단면과 돌가루, 오래된 노동의 흔적까지도 카라라의 풍경이었다. 그런데도 애수 어린 카라라는 이상하리만큼 아름다웠다. 상처를 감추지 않는 산과 이를 보듬어주는 대자연, 그 산을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돌로 도시와 예술을 일구어온 시간이 한데 겹쳐 있었다. 글 **고성연**(카라라 현지 취재)

5 폰티 디 바라(Ponti di Vara). 19세기 말 대리석을 실어 나르던 카라라 사설 철도의 교량으로, 1964년 철도가 폐선된 뒤에도 옛 철도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미지 제공_토스카나 관광청
6 카라라를 상징하는 문화 유산 중 하나인 두오모(Cattedrale di Sant'Andrea Apostolo). 아푸아네 알프스에서 나온 대리석으로 지은 카라라의 대표적인 역사 건축물이다. 이미지 제공_토스카나 관광청
7 카라라 미술 아카데미(Accademia di Belle Arti di Carrara) 내부. 대리석 기둥과 바닥 사이로 하얀 석고상들이 자리한 고아한 공간이다. 1769년 설립된 이래 카라라의 조각 교육을 이어왔다.
8 카라라 미술 아카데미 앞에 놓인 프랑코 마우로 프란키(Franco Mauro Franchi)의 'Venere Apuana(아푸아나의 비너스)'. 2023년 카라라에 기증된 작품으로, 카라라 채석 지구에서 나는 연회색 계열의 바르딜리오(Bardiglio) 대리석으로 제작됐다.
9 카라라의 조각가 협동조합(Cooperativa Scultori di Carrara) 작업장 내부. 대리석 원석과 석고 원형, 각종 기계와 도구가 함께 놓인 이곳에서 조각가들은 기계 작업에 섬세한 손길을 더해 작품을 완성한다.
10 카라라의 중심지인 알베리카 광장(Piazza Alberica)에 놓인 대리석을 활용한 작품들. 2026년 여름 이곳을 비롯한 역사 지구 곳곳에서는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대리석의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 보이는 디자인 축제 제10회 화이트 카라라(White Carrara)가 열렸다.
※ 1~4, 7, 10 이미지 Photo by Dakyo Oh
※ 5, 8, 9 Photo by SY Ko

1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2026부산비엔날레 〈불협하는 합창〉

서로 같아지지 않아도 되는 목소리들

바다를 통해 사람과 물자가 오가고 이주와 정착이 이어져온 항구도시 부산. 지금 이곳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동시대 감각이 교차하는 예술의 장, 부산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지원한 69명·팀의 기획자 가운데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공동 예술감독으로 선정된 에블린 사이먼스와 아말 칼라프는 2026부산비엔날레의 주제로 '불협하는 합창(Dissident Chorus)'을 선정했다. 그리고 부산에 스민 시간과 역사를 고려해 22개국 46작가·팀의 목소리를 부산현대미술관, 스페이스 원지, (구)부산남고등학교에 펼쳐 보였다. 서로 다른 음정과 리듬으로 충돌하고 교차하며, 때로는 낯선 울림을 빚어내는 이들의 목소리는 차이를 지우지 않은 채 연대한다.

'여러 사람이 여러 성부로 나뉘어 서로 화성을 이루며 다른 선율로 노래를 부름. 또는 그 노래.' 이는 '합창'의 사전적 정의다. 각 성부는 전체의 조화를 위해 배정된 음정과 리듬을 따르고, 서로 다른 음역과 선율은 곡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균형을 아름다운 합창의 조건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제 음을 끝까지 고집하는 목소리, 박자를 늦추거나 앞서가는 목소리, 애초에 악보에 적히지 않았던 목소리들은 전부 합창을 망치기만 하는 요소일까? 2026부산비엔날레 〈불협하는 합창(Dissident Chorus)〉(8. 29 ~11. 1)은 여러 소리가 매끈하게 어우러지는 '화음'이 아닌 다름을 유지한 채 함께 울려 퍼지는 '다성'의 감각에 주목한다. 부산의 을숙도와 영도에 모인 각기 다른 목소리들은 충돌하고 겹치기도 하며 새로운 이야기와 질문을 만들어낸다.

물론 참여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주요하게 다룬 디아스포라, 제도에 대한 저항 등은 더 이상 낯선 주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두 예술감독은 설치, 사운드, 퍼포먼스, 무빙 이미지, 조각, 회화, 드로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로 제작한 작품을 '소리'라는 큰 테마로 엮고, 참여 작가의 약 70%가 이번 비엔날레를 위해 제작한 신작을 선보이며 고유한 결을 만들어냈다.

1 이번 부산비엔날레의 주제 '불협하는 합창'은 다름을 유지한 채 함께 울리는 '다성'의 감각에 주목한다.
2 2026부산비엔날레의 전시장 중 하나인 을숙도에 위치한 부산현대미술관에서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작품을 다채롭게 구성했다.
3 류성실, '만 가지 꿈', 2026, 산업용 시저 리프트, 플라스틱 더미, 팬 모터, 사운드, 조명, 혼합 재료, 800×300×370cm.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커미션 작품, 2026.
4 전소정, '구미호하기', 2025, 단채널 영상, 인플레이터블 조각, 출판물, 사진, 38분 40초, 가변 크기. 퍼포마, 더 쇼룸 공동 커미션. 무담 룩셈부르크 현대미술관 협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제작 지원 작품, 2025.

제1악장: 부산현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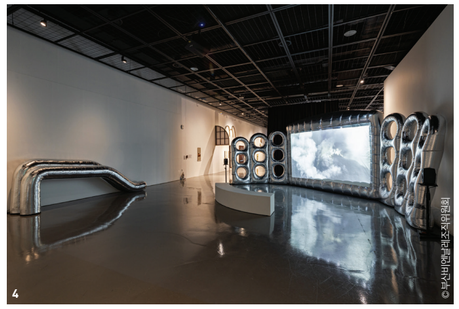
각자의 개성을 지닌 다양한 소리

올해도 부산비엔날레의 메인 전시장은 을숙도의 부산현대미술관이다. 메인 전시장답게 이곳에는 이번 부산비엔날레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가장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층마다 집중하는 테마도 조금씩 다른데 1층에서는 음악과 소리가 시위, 정치적 행동, 집단적 결집의 도구가 되는지 탐색하는 작업을 주로 만날 수 있다. 그중 허공에 멈춘 시저 리프트 위에 입에서 리본을 뿜어내는 12개의 마네킹이 서 있는 류성실의 '만 가지의 꿈'은 이번 부산비엔날레 전체를 통틀어 손에 꼽을 만큼 강한 인상을 남긴다. 유령 같은 모습으로 보는 이를 압도하는 마네킹들은 세계 일주 뒤 금의환향해야 하는 아이, 아흔다섯에도 원대한 꿈을 향해 달려야 하는 해골, 5백 년째 끝없는 길을 걷는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세 곡의 노래를 부른다. 역사적으로 천연자원이 부족했던 한국의 조건과 이를 인간의 가능성으로 대체하려 했던 집단적 상상력에서 출발한 서사다. 세계시민, 국가 발전, 브랜드명, 서구식 이름 등을 부르는 한글 가사는 끝없는 성장과 팽창을 향한 강박을 드러낸다. 밝고 희망찬 선율과 천진한 목소리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대비되며 주제 의식을 더욱 선명하게 한다. 작가가 그동안 보여준 특유의 위트를 잃지 않되 한층 더 확장한 작품 스케일은 15분간 이어지는 마네킹들의 합창을 홀린 듯이 감상하게 만든다.

2층에는 세대 간의 대화와 선조로부터 이어진 기억, 문화적 상징, 대대로 전승된 지식의 형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작품을 다수 배치했는데, 특히 전소정의 '구미호하기'를 주목할 만하다. 어떤 모습으로든 변하는 동아시아 신화 속 구미호와 소설가 옥타비아 버틀러의 가상 신앙 체계 어스시드(Earthseed)에서 가져온 씨앗이 작업의 두 축이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극장의 여성 예술가들과 협업해 제작한 영상은 구소련 통치 아래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의 역사와 공동체를 통해 이어온 소리의 기억을 따라간다. 영상이 상영되는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공기 주입식 구조물과 화면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AI가 생성한 장면 전환은 구미호의 변신 능력을 연상시킨다. 더불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구현된 씨앗 저장소는 생태와 기술이 교차하는 장면을 만들어낸다. 시각과 청각, 지난 역사와 현대 기술,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겨난 이야기의 모티브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관람객을 사로잡는다. 지하에서는 나이트라이프와 하위문화에 뿌리를 둔 목소리들이 전면에 등장한다. 그래피티로 장식된 금속 셔터 설치 작품인 R.I.P. 제르메인의 '조용한 전쟁을 위한 침묵의 무기(건설과 파괴)', 동일 작가가 영국 드릴 음악 장면의 1백61개 영상 클립을 재구성해 제작한 '죽은 척하기', 퀴어와 샤머니즘적 서사를 품은 듀킹의 장소 특정적 설치 작품 '신이 떠난 무대'의 첫 장인 '제1막: 피의 무대' 등을 만날 수 있다. 지하의 공간적 특성은 작품들이 다루는 밤의 문화와 몸의 감각을 생생하게 전한다.

2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3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4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5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6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5 관람객들이 2026 부산비엔날레의 전시장 중 하나인 스페이스 원지에서 줄리앙 크뤼제의 영상 작업 '줌비 줌비 에테르노'를 감상하고 있다. 프린트된 천으로 감싼 자동차 등으로 이루어진 주변의 설치 작품 덕에 바다의 심연에 침잠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6 브라힘 탈, '불협화음의 합창: 바다의 창조', 2025, 19채널 음향 설치, 검은색 MDF 스피커, 금속 스피커 스탠드, 주문 제작 마더보드, 가변 크기.
7 이동근, '세 개의 섬 – 가덕도 / 가덕의 노래', 2020~2026, 사진, 영상 및 아카이브, 가변 크기, 10분 41초.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커미션 작품, 2026.
8 파티마 칼릴 칸, '업질러진 물', 2026, 혼합 재료, 가변 크기.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제작 지원, 2026.
9 박현성,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한', 2026, 직물,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 호스, 가변 크기.
※ 1~9 이미지 제공_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제2악장: 스페이스 원지

익숙한 듯 낯선 바다의 소리

선박 창고를 개조해 꾸린 복합 문화 공간 스페이스 원지에는 바닷속에서 퍼져나가는 낮은 주파수에 귀를 기울이는 작품이 모여 있다. 영도의 바다를 마주한 공간의 특성과 작가들이 구현한 수면 아래의 소리가 공명하며 한층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지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입구를 지나면 줄리앙 크뤼제의 영상 작업 '줌비 줌비 에테르노'를 마주하게 된다. 식민지 브라질에서 노예해방 공동체를 이끌며 식민 권력에 맞섰던 줌비 두스 파우마레스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영상 속에서 유영하는 줌비의 형상과 독성을 지닌 복어, 독말풀은 삶과 죽음,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장면을 만든다. 그 곁에는 프린트된 천으로 감싼 7대의 자동차로 구성된 설치 작품이 놓여 있다. 산업사회의 상징인 자동차는 바다 생명체나 오래된 유물을 닮은 낯선 존재처럼 보인다. 이처럼 한 공간에 겹친 이질적 이미지들은 역사와 신화, 인간과 자연의 구분을 느슨하게 하며 익숙한 질서 바깥의 세계를 상상하게 만든다.

개인적으로는 세 공간 가운데 스페이스 원지의 구성이 특히 마음에 들었는데, 공간의 초입과 끝에 주제 의식이 선명하고 감각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작품을 배치해 전시 전체의 밀도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전시장 끝에서 만나는 브라힘 탈의 '불협화음의 합창: 바다의 창조'는 이번 비엔날레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하는 작업이다. 작가는 바다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노래한 곡을 협업자, 친구, 가족이 저마다 해석해 부르는 목소리를 녹음했다.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로 낭송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각자의 키에 맞춰 서로 다른 높이로 전시장에 설치된 19대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진다. 스피커 주변을 배회하는 관람객과 스피커와의 거리에 따라 특정 인물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기도 하고 여러 소리가 겹치기도 한다. 이처럼 작품은 저마다의 언어와 기억, 정체성을 지우지 않은 소리들이 같은 공간을 울리는 것 또한 합창이 될 수 있다는 이번 부산비엔날레의 주제를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이외에도 조아르 송쿠야의 '선원직 프로젝트' 연작은 선원으로 일했던 작가의 기억을 그림 일기처럼 보여주고, 조타 몽바사의 '물에 잠기는 것은 시가 아니다. 그렇다고 시가 아닌 것도 아니다'는 작가가 부산 앞바다를 직접 항해하며 수중 마이크로 기록한 소리를 들려준다. 스페이스 원지에서 바다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노동과 기억, 생태와 감각을 담아낸 아카이브이자 서로 다른 목소리를 이어주는 매개가 된다.

제3악장: (구)부산남고등학교

규율과 제도를 향한 저항의 소리

마지막 악장은 올해 초 학교 이전으로 비워진 영도 남단의 (구)부산남고등학교에서 펼쳐진다. 학생들을 사회의 규범과 질서로 편입시키는 제도적 공간이던 학교는 작품 설치를 통해 단일한 진실과 제도화된 배움에 질문을 던지는 장소로 탈바꿈했다. 재활용 직물이 운동장에 거대한 악보처럼 펼쳐진 알리아스카르 아바카스의 '주문'을 시작으로, 작품들은 본관의 교실과 구름다리, 후관, 옥상 등에 흩어져 있다.

2층의 세 교실에 나뉘어 설치된 이동근의 '세 개의 섬'은 일본 오키나와, 대만 금문도, 한국 가덕도의 풍경과 사람들의 목소리를 사진, 영상, 아카이브 등 다양한 형식으로 담아냈다. 미군 기지 이전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오키나와, 포격의 상흔이 남은 금문도, 군사기지를 거쳐 신공항 건설 갈등을 겪는 가덕도는 식민 지배와 전쟁, 분단과 점령의 기억을 공유한다. 관람객은 세 섬에 깃든 세밀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려져 있던 지난 역사의 흔적과 오늘의 삶을 마주하게 된다. 자수와 드로잉, 레이스, 인조 모발을 더한 시리얼 상자를 책상과 의자 위 등 교실 곳곳에 배치한 4층의 파티마 칼릴 칸의 '업질러진 물' 역시 인상적이다. 화려한 색채와 머리카락이 자라난 듯한 시리얼 상자의 형상은 집과 학교, 텔레비전 연속극을 통해 여성의 삶에 스며든 규율을 낯설게 드러낸다. 익숙한 교실 기물과 그로테스크한 사물이 충돌하는 장면은 단정한 공간이 감춰온 규범을 되돌아보게 한다. 한편 후관의 옛 급식실과 조리실에 설치된 박현성의 '우리는 차가운 물속에 있는 것처럼 떨고 있었지'와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한'은 버려진 공간을 바다의 심연처럼 연출한 작품이다. 한때 학생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던 장소였지만 이제는 낯선 생명체의 터전이 되어버린 듯한 이곳에서는 경직된 제도에 갇혀 있던 상상력을 되살린다. 관람 순서는 위치와 전시 장소별 작품 특성을 고려해 (구)부산남고등학교에서 시작해 스페이스 원지를 거쳐 부산현대미술관으로 향하길 권한다. 제도와 배움의 틈을 먼저 살핀 뒤, 인간과 비인간의 목소리가 교차하는 감각을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다층적인 소리를 만나는 흐름이다. 이는 바다에 던진 돌멩이가 만든 동심원이 점차 넓게 퍼져나가듯, 점점 더 큰 이야기로 확장되어가는 동선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공간의 작품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2026부산비엔날레는 우리가 직면한 다중 위기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그러고는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마주치며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다음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차이를 지우지 않은 채 저마다의 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는 미래의 가능성이다. 글 **양혜연**(객원 에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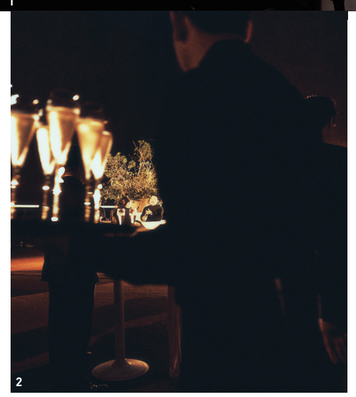
7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8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9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1

11


2

The World of Creation

1847년 파리의 보석 아틀리에에서 시작한 까르띠에는 1백80여 년의 시간 동안 주얼리와 워치메이킹을 비롯해 향수, 액세서리, 레더 제품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넓혀왔다. 뛰어난 장인 정신과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 코드는 새로운 영역과 조화를 이루며 까르띠에만의 유산과 혁신을 한층 선명하게 드러낸다. 하이 주얼리 컬렉션과 찬란한 순간을 기념한 이벤트, 그리고 새로운 백 컬렉션까지. 10월, 까르띠에가 선보이는 새로운 면면을 들여다본다.

6

10

3

4
5

“
르 쾨르 데 피에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무려 8만5천 시간 이상의 섬세한 작업을 거쳐 1백25점의 유니크한 피스를 완성했습니다. 탁월한 기술력과 높은 심미적 기준으로 완성한 각각의 작품에는 아틀리에의 장인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타임리스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워크숍 디렉터
알렉사 아빗볼

7

8

9

1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던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내부. **2, 10** 컬렉션에서 영감받은 정찬과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까르띠에 갈라 디너 현장. **3** 르 쾨르 데 피에르 컬렉션의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와 이어링, 링을 착용한 까르띠에 앰배서더 지수. **4, 5** 듀모티어라이트, 탄자나이트, 크리소프레이즈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이국적인 매력을 더한 르 쾨르 데 피에르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와 이어링. **6** 까르띠에 갈라 디너에 참석한 스트레이 키즈 현진은 에메랄드 및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르 쾨르 데 피에르 하이 주얼리 브로치와 파샤 드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워치를 착용했다. **7** 다이얼부터 베젤까지 다이아몬드로 화려하게 장식한 화이트 골드와 플래티넘 소재의 파샤 드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워치. **8** 화이트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르 쾨르 데 피에르 하이 주얼리 브로치. **9**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옐로 다이아몬드를 수놓은 르 쾨르 데 피에르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를 착용하고 포즈를 취한 모델. **11** 예술 작품과도 같은 하이 주얼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주얼리 쇼. © Cartier

서울을 수놓은 까르띠에의 존재감

‘모든 것은 스톤에서 시작된다.’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에서 젬스톤은 단순한 장식 재료를 넘어 창작의 출발점이다. 스톤의 형태와 컬러, 빛의 깊이와 반사, 그리고 오랜 시간 축적된 역사와 상징성까지 작품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디자이너는 각 스톤이 지닌 고유성에 귀 기울이고, 메종의 장인들은 정교한 기술과 섬세한 손길을 더한다. 서로 다른 전문성이 긴밀하게 맞물리는 과정에서 하나의 하이 주얼리가 완성된다. 주얼리 & 워치 메종 까르띠에가 선보인 ‘르 쾨르 데 피에르(Le Chœur des Pierres)’ 하이 주얼리 컬렉션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생했다. 지난 5월 프랑스 생트로페에서 시작해 호주 멜버른을 거쳐 9월 서울에 도착했으며, 한국적 정서와 까르띠에의 세계관이 만나는 특별한 장면을 연출했다.

르 쾨르 데 피에르 컬렉션은 새롭게 단장한 까르띠에 메종 청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공간 곳곳에는 한옥의 정서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와 보자기에서 영감받은 듯한 디테일, 여백을 활용한 공간 구성으로 동양적 미감을 담아냈다. 화려한 작품을 일렬로 나열하기보다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배치했으며, 일부 작품은 그룹을 이루며 풍성한 볼륨감을 보여줬다.

공간과 주얼리가 서로의 매력을 부각하는 가운데, 각각의 스톤을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구현한 까르띠에의 장인 정신과 기술력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컬렉션의 서울 여정은 유서 깊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갈라 디너로 이어졌다. 역사적 공간에서 느껴지는 웅장함과 깊이에 산수화를 연상시키는 미디어 월, 컬렉션에서 영감을 얻은 정찬과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더해지며 특별한 밤의 풍경을 완성했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인 건 주얼리 쇼와 까르띠에의 앰배서더 블랙핑크 지수, 스트레이 키즈 현진이었다. 지수는 듀모티어라이트, 탄자나이트, 크리소프레이즈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르 쾨르 데 피에르 컬렉션의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와 이어링, 링을 착용했는데, 서로 다른 색감을 지닌 젬스톤이 만들어내는 섬세한 색의 레이어가 우아한 매력을 배가했다. 스트레이 키즈 현진은 보다 강렬하고 모던한 스타일을 보여줬다. 에메랄드 및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르 쾨르 데 피에르 하이 주얼리 브로치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와 플래티넘 소재의 파샤 드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워치를 매치했다. 두 앰배서더는 젬스톤이 지닌 다채로움을 각기 다른 스타일로 완벽하게 표현했다.

찬연한 빛, 르 쾨르 데 피에르

까르띠에가 하이 주얼리를 완성하는 과정의 중심에는 메종이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력과 장인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스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젬스톤은 스톤 전문가와 주얼러, 세공 장인의 손을 거치며 예기치 못한 컬러의 조합과 대비, 대담한 볼륨을 갖춘다. 연필로 첫 스케치를 그리는 순간부터 완성된 피스에 이르기까지 디자이너와 장인 사이에는 끊임없는 대화가 오가며, 서로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가 더해진다. 그렇게 축적된 시간과 섬세한 과정은 까르띠에만의 스타일을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고귀한 젬스톤을 중심에 둔 ‘르 쾨르 데 피에르’는 이름에서부터 컬렉션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프랑스어로 합창을 뜻하는 ‘쾨르(chœur)’와 심장을 의미하는 ‘쾨르(cœur)’의 발음이 같다는 점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서로 다른 스톤이 하나의 작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도 각자의 본질을 온전히 간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컬렉션에서는 까르띠에의 역사와 창조적 유산을 새로운 언어로 풀어낸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르 쾨르 데 피에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메종의 오랜 역사와 장인 정신, 스톤을 바라보는 독창적 시선이 한데 응축된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메종의 유산과 현재를 잇고 시대를 초월한 까르띠에만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

이 백의 미학은 군더더기 없는 유려한 라인에서 비롯됩니다. 아이코닉한 잠금장치는 손잡이 양쪽에 자리해 백의 실루엣에 변화를 주죠. 잠금장치를 열어두면 한층 여유롭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스터드를 돌려 잠그면 보다 구조적인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 액세서리 및 레더 굿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릴린 유슨

1

2

3

4

1 클래쉬 드 까르띠에 백을 착용한 캠페인 모델 레베카 리 롱엔다이크. ©Mark Kean ©Cartier **2, 3** 주얼러의 시선으로 완성한 클래쉬 드 까르띠에 백은 유려하게 떨어지는 실루엣과 날카로운 스터드 잠금장치의 강렬한 대비가 특징이다. ©François Coquerel ©Cartier **4** 블랙·캐러멜·버건디 컬러로 선보이며 세 가지 컬러 모두 스몰·미디엄·라지 사이즈로 출시된다. © François Coquerel © Cartier **5** 캐러멜 컬러의 미디엄 클래쉬 드 까르띠에 백. **6** 브랜드를 상징하는 버건디 컬러의 미디엄 클래쉬 드 까르띠에 백.

Jewelry Codes, Reimagined

주얼리 메종의 정체성은 주얼리에만 머물지 않는다. 까르띠에는 오랜 시간 이어온 미학과 상징적 모티브를 백에 담아 영역을 넓혀왔다. 이번 신제품 역시 까르띠에가 추구해온 조형적 특징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또 하나의 오브제다. 주얼러의 시선으로 탄생시킨 클래쉬 드 까르띠에 백은 메종을 대표하는 클래쉬 드 까르띠에 주얼리에서 영감받아 독창적 디자인으로 완성됐다. 유려하게 떨어지는 백의 실루엣과 대비를 이루는 날카로운 스터드 잠금장치는 첫눈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비틀어 여닫는 방식으로 핸들 양쪽 끝에 자리해 장식적인 역할과 함께 백의 형태를 안정적으로 잡아준다. 열어두면 자연스럽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완전히 잠그면 한층 정제되고 구조적인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다.

까르띠에 피렌체 워크숍에서 제작하는 백은 은은한 광택과 부드러운 촉감이 돋보이는 섬세한 카프 스킨으로 완성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고유의 컬러와 결, 자연스러운 광택이 더해져 소재 본연의 변화를 즐길 수 있다. 스몰·미디엄·라지 사이즈로 선보이며 블랙과 캐러멜, 까르띠에를 상징하는 버건디 컬러로 만나볼 수 있다. 버건디는 1970년대 머스트 드 까르띠에 컬렉션과 함께 처음 선보인 메종의 시그너처 컬러로, 까르띠에의 역사와 상징성을 담고 있다. 까르띠에 액세서리 및 레더 굿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릴린 유슨은 “이 백의 진정한 매력은 잠금장치뿐 아니라 매끄럽게 떨어지는 보디라인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편지봉투 형태에서 모티브를 얻어 군더더기 없이 우아하게 완성했죠”라고 덧붙였다. 잠금장치를 잠그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는 클래쉬 드 까르띠에 백은 일상적인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도 까르띠에만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새롭게 출시된 클래쉬 드 까르띠에 백은 까르띠에 메종 청담 부티크와 공식 홈페이지(cartier.com)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877-4326 에디터 **김하얀**

Watches that Travel

시와 분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 듀얼 타임, 월드타이머 등 다른 시간대의 시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워치를 소개한다. 출장과 해외여행이 잦은 이들을 위한 트래블 워치 6.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태그호이어 까레라 크로노그래프 익스트림 스포츠 트윈 타임** 44mm 티타늄 케이스와 미세 브러싱 및 그레인 마감이 어우러진 오픈워크 다이얼 중심부에는 인하우스 GMT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TH20-02가 자리한다. 24시간 스케일을 표시한 고정 바이컬러 세라믹 베젤은 GMT 기능을 한층 강조한다. 레드 및 틸 래커 핸즈, 슈퍼-루미노바®를 적용한 6시 방향의 데이트 디스플레이 등 곳곳에서 브랜드의 레이싱 DNA를 확인할 수 있다. 1천3백42만원. 문의 02-3479-6021 **파네라이 루미노르 루나 로사 GMT PAM01404** 세링링 팀 루나 로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40mm 브러시드 스틸 케이스와 블루 선브러시드 다이얼을 조합했다. 2개의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P.900/GMT 칼리버를 장착했으며, 약 3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1천5백23만원. 문의 02-2118-6256 **오메가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월드타이머** 43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태양광 패턴의 블루 다이얼과 블루 러버 스트랩을 매치했다. 2개의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GMT와 세계 주요 도시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월드타이머 기능을 갖췄으며, 다이얼 중앙의 24시간 글라스 링은 라이트 블루로 낮을, 다크 블루로 밤을 표시한다. 1천6백만원대. 문의 02-3467-8632 **튜더 블랙 베이 GMT** 동형 오팔린 다이얼과 버건디 및 블루 컬러의 양방향 회전 24시간 베젤이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MT5652 칼리버를 탑재해 현지 시간과 홈 타임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7백만원대. 문의 02-6956-1908 **블랑팡 빌레레 컴플리트 캘린더 GMT** 40.5mm 스틸 케이스와 화이트 다이얼에 듀얼 타임존, 문페이즈, 컴플리트 캘린더 등의 기능을 담고 블랙 악어가죽 스트랩으로 마무리했다. 칼리버 67A5.4를 장착했으며, 약 72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2천5백만원대. 문의 02-3479-1833 **바쉐론 콘스탄틴 오버시즈 듀얼 타임 카디널 포인트 SOUTH** 41mm 케이스와 일체형 브레이슬릿, 교체 가능한 폴딩 버클까지 모두 견고한 티타늄으로 제작했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말테 크로스 형태의 노치 디테일과 세컨드 타임 존, 오전과 오후를 표시하는 오렌지 컬러 핸즈가 다이얼과 뚜렷한 컬러 대비를 이루며 스포티한 매력을 배가한다. 6천4백50만원. 문의 1877-4306 에디터 **김하얀**

어시스턴트 **김지현**

Confluence of Artistry

예술과 워치메이킹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블로가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와 만나 2개의 새로운 컬렉션을 공개했다. 쿤스의 대표작 'Balloon Dog'에서 영감받은 '클래식 퓨전 벌룬 독'은 익숙한 조형물을 손목 위 타임피스로 재해석했으며, 'MP-14 오리진'은 우주의 탄생이라는 주제를 독창적인 기계식 구조로 풀어냈다. 각기 다른 영감에서 출발한 두 컬렉션에는 일상의 대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제프 쿤스의 예술적 상상력과 기존 틀을 넘어 새로운 시간의 형태를 탐구해온 위블로의 기술력이 반영되어 있다.

1

3

2

1 제프 쿤스의 'Balloon Dog'에서 영감받은 '클래식 퓨전 벌룬 독'은 레드와 블루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미러 폴리시드 스테인리스 스틸 등 세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며, 각 2백 피스 한정 출시된다. **2**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와 협업해 기존 클래식 퓨전 워치의 형태와 비율을 재해석하고, 풍선처럼 보이는 실루엣을 완성했다. **3** 워치 컬러에 맞춘 크롬 마감과 러버 질감의 도장 마감을 적용한 패키징은 워치는 물론 이를 꺼내 마주하는 순간까지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한다. **4** 우주의 탄생이라는 근원적 주제를 담은 'MP-14 오리진'은 사파이어와 티타늄 등의 소재를 사용해 하이 주얼리에 견줄 만큼 영롱한 자태를 자랑한다.

> *"아티스트 제프 쿤스와 함께한 협업은 친숙하고 유쾌한 형태에 고도의 엔지니어링과 정밀한 가공, 치밀한 설계를 담아낸 기술적 도전이었다. 단순해 보이는 결과물일수록 그 이면에는 더욱 정교한 기술과 장인 정신이 필요하다"*
> *- 위블로 CEO 줄리앙 토나레*

4

예술과 워치메이킹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블로가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와 특별한 협업을 선보인다. 이번 만남을 통해 공개한 타임피스는 '클래식 퓨전 벌룬 독'과 'MP-14 오리진'이다. 서로 다른 모습의 타임피스지만, 그 바탕에는 익숙한 대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를 전혀 다른 형태로 구현한다는 공통된 창작 방식이 자리한다. 제프 쿤스는 'Balloon Dog', 'Rabbit', 'Puppy' 등을 통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사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왔다. 누구에게나 친숙한 풍선 동물을 커다란 조각으로 확장하고, 거울처럼 매끄럽게 다듬은 표면과 정밀한 제작 방식으로 평범한 오브제를 문화적 아이콘으로 탈바꿈시킨다. 개별고 유희적으로 보이지만 구조가 치밀하고 완성도가 높다는 점 역시 그의 작업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번 협업에서 위블로가 주목한 것도 바로 이러한 쿤스의 접근 방식이다. 그의 작품을 시계에 단순히 재현하는 대신, 일상의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 자체를 워치메이킹에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물 가운데 보다 직접적으로 쿤스의 예술 세계를 드러내는 모델이 '클래식 퓨전 벌룬 독'이다. 제프 쿤스의 대표작 'Balloon Dog'에서 영감을 얻은 이 타임피스는 작품의 형태를 표면적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시계를 이루는 모든 요소에 풍선의 조형미를 녹여냈다. 기존 클래식 퓨전 특유의 매끄럽고 세련된 실루엣 대신 풍선처럼 팽창한 볼륨을 내세웠다. 42mm 케이스 전반에는 부드러운 돔형 표면을, 티타늄 스크루 헤드부터 다이얼과 스트랩 곳곳에는 곡선을 더해 마치 내부의 압력으로 부풀어 오른 듯한 착시를 만들어낸다. 조형적 특징은 세부적인 디테일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러버 몰딩 처리한 알루미늄 크라운은 풍선의 매듭을 연상시키며, 10시 방향에는 벌룬 독의 꼬리를 떠올리게 하는 장식을 더했다. 초침의 카운터 웨이트 역시 벌룬 독의 실루엣처럼 제작했으며, 인덱스와 핸즈에도 둥글게 부풀어 오른 형태를 적용했다. 케이스와 다이얼, 크라운, 핸즈에 이르기까지 시계를 이루는 각각의 요소가 하나의 주제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 타임피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컬러다. 미러 폴리시드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과 함께 선보이는 레드 및 블루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버전은 제프 쿤스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색채와 경쾌한 분위기를 손목 위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알루미늄은 단지 선명한 색상을 구현하기 위한 소재가 아니다. 폴리시드 아노다이징 공정을 통해 강렬한 컬러와 금속 특유의 광택을 동시에 구현했으며, 벌룬 독을 연상시키는 둥글고 매끄러운 표면과 만나 빛의 움직임까지 디자인의 일부로 끌어들인다. 빛은 평평한 면에 머무르지 않고 부풀어 오른 케이스의 곡선을 따라 흐르며 색과 표면의 깊이를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디자인의 조형적 언어는 시계 내부와 패키징으로도 이어진다. 자체 제작 오토매틱 칼리버에는 케이스와 조화를 이루는 둥글고 풍성한 형태의 텅스텐 오실레이팅 웨이트를 새롭게 설계해 적용했으며, 패키지에도 벌룬 독에서 영감을 얻은 오브제를 각 타임피스의 컬러에 맞춘 크롬 마감으로 제작했다. '클래식 퓨전 벌룬 독'은 미러 폴리시드 스테인리스 스틸, 레드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블루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등 세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며, 각 에디션은 2백 피스 한정으로 제작된다.

'MP-14 오리진'은 쿤스의 세계관을 보다 예술적이고 추상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위블로의 익셉셔널 타임피스 컬렉션에 새롭게 추가한 이 타임피스는 기존의 시간 표시 방식은 물론 기계식 구조에 대한 고정관념까지 넘어선다. 핵심 테마는 우주의 탄생이다. 모든 것이 팽창하기 시작한 신비로운 우주를 표현하기 위해 투명한 사파이어와 티타늄, 젬 세팅 화이트 골드를 사용하고, 케이스 내부에는 여러 겹의 궤도 구조를 구축했다. 44mm 크기의 팔각형 사파이어 케이스는 약 5백34시간에 걸친 정밀 가공을 통해 완성했으며, 투명한 케이스 자체가 내부의 복잡한 구조를 감상할 수 있는 프레임 역할을 한다. 사파이어 돔 아래에는 반투명 블루 바니시를 수작업으로 입힌 구조를 배치하고, 그 중심에 위블로 최초의 오토매틱 센트럴 투르비용을 장착했다. 투르비용이 외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설계한 구조는 모든 움직임이 중심에서 시작해 주변으로 확장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시간과 분을 표시하는 방식 역시 기존 시계와는 다르다. 2개의 회전 링을 따라 시간과 분을 나타내는 인디케이터 큐브가 움직이며 천체가 궤도를 따라 공전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다. 시간 표시 큐브는 반투명 레드 바니시를 입힌 레드 폴리시드 스테인리스 스틸로, 분 표시 큐브는 그레이 폴리시드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했다. 이를 둘러싼 4개의 링에는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와 블루 사파이어를 세팅했으며, 우주를 연상시키는 깊이와 광채를 더한다. 복잡한 구조를 움직이는 핵심은 HUB9014 매뉴팩처 무브먼트다. 오토매틱 센트럴 투르비용을 탑재한 이 칼리버는 총 5백94개의 부품으로 구성했으며, 주변부 오실레이팅 매스를 결합해 개방된 구조 속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전달을 구현했다. 친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고, 서로 다른 요소를 결합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번 협업이 보여주는 위블로의 오랜 철학, 'The Art of Fusion'이다. 문의 02-540-1356

에디터 **김하얀**

Nothing Better

단단한 구조와 유연한 감각 사이 섬세한 균형, 새 '코르소(Corso)' 백으로 증명하는 보테가 베네타의 미학.

"넓고 볼륨감 있는 몸체는 분명 건축적이지만 윤곽은 경직되지 않았고, 부드럽게 접히는 실루엣이 형태에 느슨한 여유를 만든다. 유연한 나파 가죽으로 완성한 폭넓은 인트레치아토와 매끈한 레더 사이드 패널의 조합 역시 단순한 장식적 대비라기보다 구조와 촉감의 대비에 가깝다"

보테가 베네타에서 루이스 트로터가 지금까지 펼쳐 보인 세계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에 가깝다. 2026 여름 데뷔 컬렉션에서 그는 하우스의 60년 아카이브를 전복하기보다 다시 들여다보는 쪽을 택했다. 보테가 베네타를 '살아 있는 존재'처럼 바라보았으며, 인트레치아토를 가방의 표식에 머물게 하지 않고 트렌치코트와 스커트, 드레스, 슈즈로 확장했다. 과장된 숄더와 넓은 팬츠, 몸을 감싸는 볼륨은 건축적이었지만 동시에 옷과 가방이 착용자의 몸에 맞춰 움직이고 '사람의 연장'처럼 느껴져야 한다는 그의 생각이 컬렉션 전체를 관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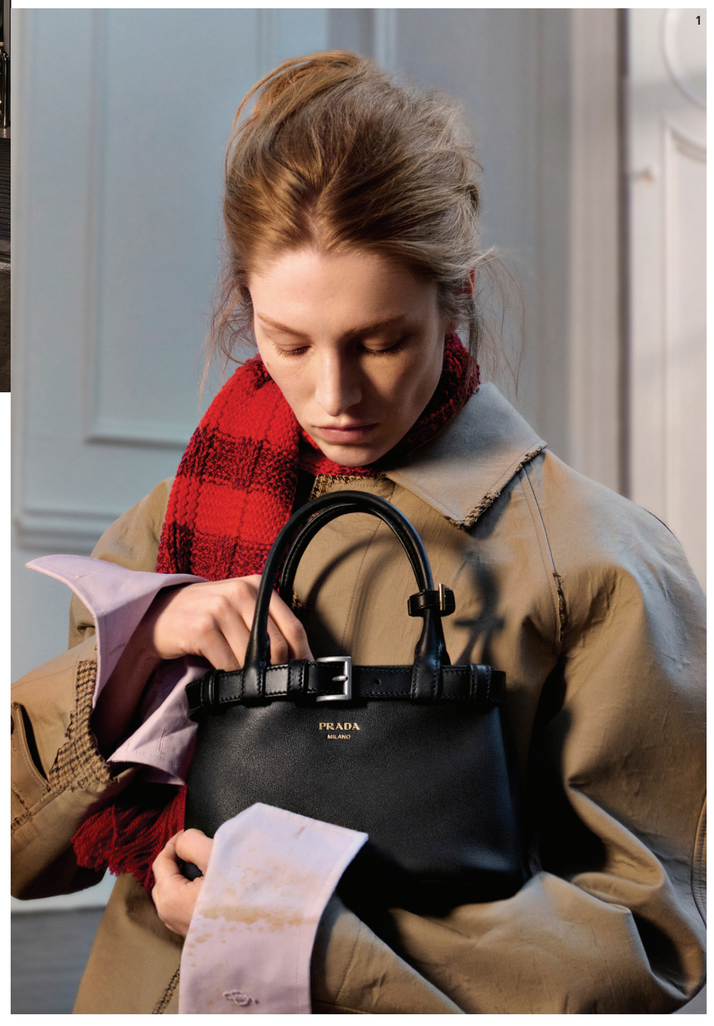
2026 겨울 컬렉션에서 이 문법은 더욱 또렷해졌다. 트로터는 자신이 새로 살게 된 밀라노를 '브루털리즘'과 '관능'이 공존하는 도시로 읽었다. 엄격한 외관에 감춰진 부드러움, 단단함과 유연함의 충돌은 둥글게 다듬어진 테일러링과 코쿤 같은 볼륨, 가죽과 실크, 시어링을 서로 다른 물질처럼 보이게 만드는 표면 실험으로 이어졌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런 과도한 볼륨과 공예의 밀도가 때로 착용자를 압도한다고 지적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비판 또한 트로터가 무엇을 시험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준다. '구조를 어디까지 밀어붙이면서도 몸과 생활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새 토트백 '코르소(Corso)'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간결한 답처럼 보인다. 이 백에는 트로터가 두 시즌 동안 반복해온 대비가 거의 공식처럼 담겨 있다. 특히 더욱 흥미로운 점은 런웨이에서 다소 과장되게 드러났던 트로터의 미학이 일상적인 가방이라는 형식 아래 한층 설득력 있게 정리된다는 것이다. 넓고 볼륨감 있는 몸체는 분명 건축적이지만 윤곽은 경직되지 않았고, 부드럽게 접히는 실루엣이 형태에 느슨한 여유를 만든다. 유연한 나파 가죽으로 완성한 폭넓은 인트레치아토와 매끈한 레더 사이드 패널의 조합 역시 단순한 장식적 대비라기보다 구조와 촉감의 대비에 가깝다. 한쪽은 손으로 만지고 싶게 만드는 표면이고, 다른 한쪽은 전체의 선을 또렷하게 잡는다. 핸들은 별도의 부속처럼 튀어나오지 않고 스웨이드 안감을 적용한 보디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덕분에 가방의 외곽선은 끊기지 않으면서 숄더에 편안하게 걸린다. 이는 보테가 베네타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레더의 감각을 단지 '좋은 가죽'이라는 익숙한 명제로 되풀이하지 않고, 표면과 무게, 손에 닿는 느낌의 차이로 세분화하려는 시도다. 로고 대신 소재와 제작 방식으로 정체성을 드러내온 하우스에서 이처럼 촉각적인 차이는 곧 디자인 언어가 된다. 당연히 실용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 넉넉한 수납력은 물론 스몰부터 맥시까지 이어지는 네 가지 다양한 사이즈 옵션을 제공하며 각기 다른 크기 안에서도 디자인 고유의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또 시즌 컬러와 함께 가볍고 독특한 질감의 카프 스킨 레더로 완성한 옵시디언 그레이(Obsidian Grey)와 스팅(Sting) 컬러 버전으로도 선보인다. 국내에서는 스몰을 제외한 세 가지 사이즈로 만나볼 수 있다. 미디엄은 블랙과 페트롤리움, 라지는 블랙, 맥시는 실리카 그레이와 바크 그린 컬러로 출시되어, 이번 가을 다양한 스타일과 취향을 아우르는 폭넓은 선택지가 되어준다. 이로써 보테가 베네타는 정제된 구조미와 소재 본연의 부드러움 사이에 섬세한 균형을 만들어내며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텍스처와 무게, 촉각적 감각에 대한 접근을 한층 확장한다. 결국 루이스 트로터의 보테가 베네타는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과거를 지우는 방식과는 거리를 둔다. 그는 인트레치아토와 가죽이라는 가장 익숙한 코드를 통해 비례를 바꾸고, 소재의 성질을 뒤집고, 단단함과 부드러움 사이의 긴장을 계속 조율한다. 코르소는 그 실험이 가장 현실적인 크기로 압축된 결과물이다. 멀리서 보면 절제된 토트백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위빙의 폭, 접힌 측면, 매끈한 패널, 몸과 이어지는 핸들이 서로 다른 감각을 만든다. 과시보다 사용, 장식보다 촉감, 완벽하게 고정된 형태보다 움직이는 형태. 트로터가 보테가 베네타에서 구축하고 있는 력셔리는 '보이는 것'보다 '몸으로 경험하는 것'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문의 02-3438-7694

에디터 **성정민**

1 보테가 베네타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르소 백을 든 모델. 우아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담았다.
2 배우 줄리언 무어도 코르소 백을 선택했다. 넉넉한 수납력으로 짐 백으로도 안성맞춤.
3 미디엄 사이즈의 블랙 컬러 코르소 백.
4 맥시 사이즈의 코르소 바크 그린 컬러.

Small, Yet Strong

축소는 정체성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더욱 응축하는 과정이다.
2026 F/W 컬렉션에 새롭게 작아진 사이즈로 등장한 프라다 버클 백이 이를 증명한다.



"백이 작아지면서 스타일링 방식이나 백을 드는 방식도 더 다채로워진다. 이는 프라다가 새로운 백을 통해 선보이는 새로운 패션 트렌드이기도 하다"

1 프라다 앰배서더인 배우 헌터 샤퍼가 캠페인 비주얼에서 든 블랙 송아지 가죽 버전의 버클 백.
2 브라운 컬러 송아지 가죽으로 완성한 15×22×11cm 사이즈의 버클 백.
3 헌터 샤퍼가 새로운 사이즈의 프라다 버클 백을 들고 촬영한 광고 캠페인 비주얼.

이 매일 옷을 입으며 끊임없이 선택하고 변화하는 현실을 보여준 장치라고 해석했다. 이 컬렉션에 등장한 버클 백이 더 작아진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다. 옷은 여러 겹으로 확장된 반면, 손에 들린 가방은 오히려 축소된다. 그 때문에 수납을 위한 커다란 도구가 아니라 손의 제스처와 태도를 강조하는 오브제로 남는다.

지금 패션은 더 이상 '큰 백인가 작은 백인가', '미니멀인가 맥시멀인가'처럼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2026년의 옷장은 상반되는 선택을 동시에 허용한다. 실용성과 장식, 여성성과 중성성, 클래식과 기이함이 한 룩에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상반된 개념을 충돌시키면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내는 일은 미우치아 프라다가 수십 년 동안 가장 잘해온 일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2026년의 작은 버클 백이 더욱 흥미롭다. '새로운 형태를 발명해서'가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백과 벨트, 버클이라는 요소를 다시 조립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이다. 나일론을 럭셔리로 만들었던 프라다가 이번에는 기능을 장식으로, 장식을 다시 구조로 바꾼다. 고로 버클 백의 핵심은 결국 버클 자체가 아니라 그 전환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라다를 사랑하는 이라면 새로운 버클 백은 또 하나의 즐거운 선택지가 될 것이다. 문의 080-522-7199

에디터 **성정민**

버클 백은 2024년 F/W 컬렉션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익숙하고 기능적인 것을 낯설게 재배치해 럭셔리의 대상으로 만드는 프라다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만든 혁신적인 백이었다. 단순한 직사각형 가죽 백에 벨트를 두르고 버클을 단 것. 이 하나의 터치만으로 버클 백은 클래식함과 유니크함을 동시에 풍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백이 된다. 본래 옷을 조이거나 고정하기 위한 기능적 부품 혹은 액세서리와도 같은 장식적 요소로 사용되던 버클 벨트. 프라다는 이를 가방으로 옮겨와 또 다른 생명력을 부여한다. 벨트를 느슨하게 풀어두면 가죽의 형태는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버클을 고정하면 실루엣에 긴장감이 생긴다. 수작업 핸들은 루프로 변형돼 장식과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완성된 형태를 제시하기보다 사용자가 어떻게 조이고, 풀고, 드는지에 따라 물건의 표정이 달라지는 구조다. 프라다는 이렇듯 버클 백을 통해 변화에 대한 고찰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변주를 통해 무한한 확장을 이어간다. 바로 '사이즈' 변화다.

2026년 F/W 컬렉션에서 프라다는 작아진 사이즈의 새로운 버클 백을 선보인다. 크기를 줄였다고 해서 버클의 정체성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가죽의 면적은 줄어들지만 벨트와 버클, 손잡이의 비율은 더 또렷하게 읽힌다. 작은 가방일수록 봉제선과 구조, 소재를 다루는 정밀함 역시 더 쉽게 드러난다. 프라다가 이번 시즌 축소를 '본질을 정제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이유다. 또 작아진 버클 백은 크기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제시한다. 기존 버클 백과는 또 다른 은은한 감성을 전하며 여성스러움과 세련미를 선사하는 것. 백이 작아지면서 스타일링이나 백을 드는 방식도 더 다채로워진다. 이는 프라다가 새로운 백을 통해 선보이는 패션 트렌드이기도 하다.

2026 F/W 프라다 컬렉션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하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다. 단 15명의 모델이 네 번씩 런웨이에 등장했고, 걸을 때마다 레이어를 벗어내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다. 라프 시몬스는 백 스테이지에서 '무엇과 무엇을 입을 수 있는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혹자는 이를 여성

새로운 잇 백의 유혹. 소재와 사이즈의 다양한
변주와 함께 가을 스타일을 완성하다.
PHOTOGRAPHED BY **JUNG JI EUN**

Most Desired

버튼 스트랩 크롭트 케이프 재킷, 버튼 스트랩 미니스커트, 루나 펌프스, 스피드포켓 PM 백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러스틱 버튼 더블브레스트 재킷, 테일러드 슬림 핏 팬츠, 말 드 주르 백, 멀티패스 백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울, 캐시미어 소재의 크루넥 스웨터 가격 미정, 데보레 효과의 본디드 개버딘 스커트 7백70만원, 선글라스 가격 미정, 리나일론 플랩 디테일의 패시지 스몰 레더 백 5백5만원 모두 **프라다**. 랑데부 나파 레더 백 4백90만원 **미우미우**. 메테오 에메랄드 컷 5.00CT 메인 링 8백42만원 **페로즈**.

아이보리 니트 카디건과 스커트 가격 미정 **메종 마르지엘라.** 글로시 램 스킨 큐브 백 5백50만원, 샤이니 카프 스킨 플레어 백 6백30만원 모두 **셀린느.** 오른쪽 리오사 이어링 4백61만원, 왼쪽 아르벨 이어링 3백13만원, 쿼넷 0.30CT 테니스 네크리스 2천5백19만원, (오른손) 플로팅 링 2Stones 1.00CT 4백11만원, (왼손) 페싯하모니 링 2백74만원, 플로팅 링 2Stones 1.00CT 4백11만원 모두 **페로즈.**

나일론 소재 케이프, 폴리 소재 셔츠, 나일론 소재 쇼츠, 버건디 레더 패딩 백, 베이지 스웨이드 백,
오리 키홀더 모두 가격 미정 **몽클레르 컬렉션**. 베르 02 선글라스 37만원 **젠틀몬스터**.

실크 울 소재의 코트, 스커트, 카프 스킨 소재 플랩 백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페로지아 이어링 29만원,
페로지아 네크리스 1백22만원 모두 **페로즈**.

체크 패턴의 톱, 스커트, 아마조나 180 백, 위스커 백 모두 가격 미정 **로에베**. 라로브 2.00CT 이어링 1천1백20만원, (오른손) 에이트리아 링 0.30CT(Half) 2백58만원, (왼손) 에이트리아 링 0.20CT(Half) 2백12만원, 에이트리아 링(Full) 2백5만원, 페싯하모니 링 2백74만원 모두 **페로즈**.

캐시미어 블루종, 코튼과 캐시미어 플리스 톱, 실크와 코튼 팬츠, 펠트 햇, 실크 스카프, 셰틀랜드 실크와 리버스드 스웨이드 룸 백, 새들 래더 엑스트라 클러치 모두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테일러드 재킷, 플로럴 자수 블라우스, 타탄체크 패턴 러플 스커트, 스웨이드 패딩턴 백 모두 가격 미정 **끌로에.**
마르코 선글라스 27만원 **오드 아이웨어.**

더블브레스트 코트 가격 미정, 미니 벨라 백 3백48만원 모두 **에트로.** 네이비 부클 미디 드레스 가격 미정 **셀프-포트레이트.** 카마 선글라스 27만원 **오드 아이웨어.**
미니 클러치 가격 미정 **페라가모.** 뮈넷 0.10CT 테니스 네크리스 1천3백43만원, 페로지아 3.00CT 팬던트 4백45만원 모두 **페로즈.** 루미너스 헤일로 링 8백90만원 **반조애.**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Ada(Jennifer Model), Jayden, Antonia(Exclusive Seoul)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끌로에 02-6905-3670 **로로피아나** 02-6200-7799 **로에베** 02-3479-1785 **루이 비통** 02-3432-1854 **메종 미르지엘라** 02-772-3234 **몽클레르 젠텍신** 0030-8321-0794 **미우미우** 02-3218-5331 **반조애** 02-542-1254
셀린느 1577-8841 **셀프-포트레이트** 02-6911-0836 **샤넬** 080-805-9628 **에트로** 02-3446-1362 **오드 아이웨어** 053-313-2542 **젠틀몬스터** 070-4128-2122 **페라가모** 02-3430-7854 **페로즈** 02-542-1254 **프라다** 02-3442-1831

Get The List

보통의 하루가 모여 특별해지는 순간. 일상 곳곳에 스며든 스몰 럭셔리.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FENDI
비즈와 미러 장식 사이로 FF 버클이
화려한 멋을 더하고, 블랙
송아지가죽 핸들과 숄더 스트랩으로
활용도를 극대화한 바게트® 백.
26×14×4cm, 1천3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44-1925

QEELIN
(위부터 차례대로) 화이트 골드 밴드
중앙을 다이아몬드 올루로 장식한 쁘띠
올루 링 1백53만원, 큼직한 올루가
포인트인 다이아몬드 쁘띠 올루 링
4백65만원, 올루 모티브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한 올루 후프 링
1천97만원, 밴드부터 올루 장식까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쁘띠 올루 링
3백1만원 모두 **키린.** 문의 02-310-5189

GRAFF
화이트 골드 소재의 타원형
링크에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와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총 9.31캐럿 세팅한 틸다의 보우
링크 네크리스 가격 미정
그라프. 문의 02-2256-6810

BOUCHERON
(위부터) 화이트 골드에 33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콰트로
레디언트 그로그랭 웨딩 밴드,
내구성이 뛰어난 플래티넘 소재로
완성해 매일 착용하기 좋은 콰트로
레디언트 웨딩 밴드 모두 가격 미정
부쉐론. 문의 080-822-0250

GLASHÜTTE ORIGINAL
화이트 다이얼에 문페이즈와 파노라마
데이트, 시·분 및 스몰 세컨즈
디스플레이를 비대칭적으로 배치해
독특한 매력을 완성한 파노매틱루나
화이트 2천4백만원대 **글라슈테**
오리지널. 문의 010-4133-6426

PRADA
앤티크 가공한 부드러운
나파 가죽을 사용했으며 하이킹
슈즈에서 영감받은 후크 장식과
볼드한 레이스, 핸드 스티칭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는 컬랩스
스니커즈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0

TAG HEUER
(왼쪽부터) 화이트 머더오브펄
다이얼에 다이아몬드 아워 마커를
배치한 아쿠아레이서 프로페셔널
100 솔라그래프 4백57만원,
28mm 스틸 케이스와 선레이 블랙
다이얼, 다이아몬드 아워 마커가
어우러진 아쿠아레이서 프로페셔널
100 솔라그래프 4백27만원 모두
태그호이어. 문의 02-3479-6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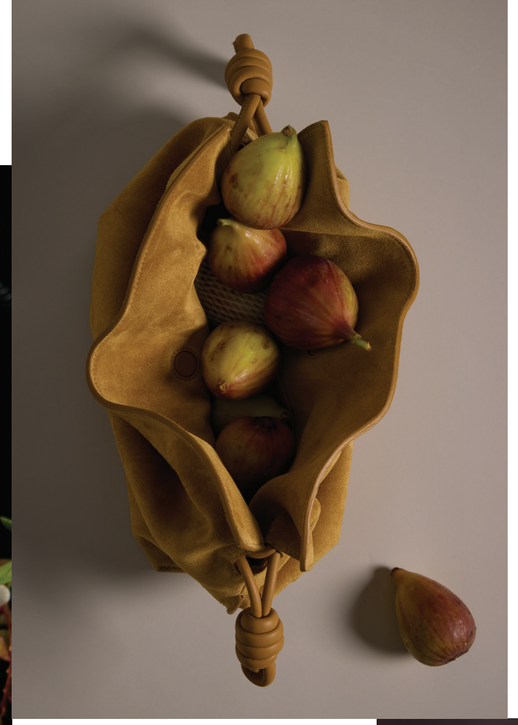
어시스턴트 **김지원**

LOUIS VUITTON
핸들부터 보디, 잠금 장식까지
화이트로 통일해 미니멀한 무드를
더한 토뤼옹 가죽 소재의
카퓌신 BB. 26×17×8.5cm.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에디터 **김하얀**

the Season Deepens

가을에 스미듯 짙고 고요한 2026 F/W 백의 결.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위부터 차례대로) 부드러운 스웨이드와 리드미컬한 드로스트링 디테일의 미디엄 오커 플라멩코 클러치, 30×24.5×10.5cm, 가격 미정 **로에베,** 문의 02-518-6416. 베니티 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으며 지퍼와 잠금 디테일을 더한 램 스킨 소재의 엑스트라 소프티 케이스 L21 백, 21×14×14cm,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은은한 하늘빛 미오소티스 블루와 그레인 카프 스킨의 섬세한 텍스처, 지퍼 디테일이 어우러진 디올 맨 아치 지퍼 스트랩 백, 28×17×11.5cm, 가격 미정 **디올,** 문의 02-3280-0104

둥글고 유려한 실루엣,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클래식한 분위기를 전하는 고트 스킨 소재 볼리드 1923 백, 18×10×7cm,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위부터 차례대로) 그레인드 버펄로
가죽을 사용해 유연한 실루엣을
자랑하며, 오버사이즈 자물쇠와
곳곳에 자리한 스터드 장식이 멋스러운
스몰 패딩턴 백. 26×12×12cm,
3백36만원 **끌로에**.
문의 02-6905-3670. 구조적인
아치 실루엣, 브랜드를 상징하는
D 모티브 포켓과 체인 스트랩이
조화로운 빵 트위스트 베제딜.
20×20×11cm, 6백3만원 **델보.**
문의 02-6905-3709. 여유로운
실루엣과 플랩 클로저, 브레이드
핸들을 더한 빈티지 무드의 양가죽
소재 랑데뷰 백. 34×25×13cm,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541-7443

(왼쪽부터) 신발 밑창에서 영감받은
엠보싱 디테일을 가방 하단에
적용한 메탈 도트백. 21×24×8cm,
가격 미정 **토즈**. 문의 02-3438-6008.
가방을 가로지르는 버클이 인상적인
호보 셰이프의 미디엄 스웨이드 포니
백. 29×20×10cm, 2백75만원
에트로. 문의 1899-2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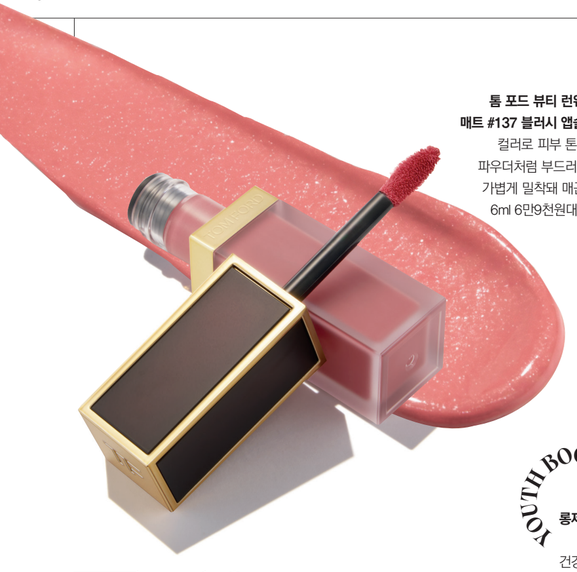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길고 슬림한
가로 셰이프에 롱 핸들을 더하고
에이징 처리한 카프 스킨 가죽으로
깊이 있는 색감을 완성한 르 텍첼.
33×11×10cm, 가격 미정 **알라이아.**
문의 02-6905-3413. 화이트 카프 스킨
소재에 골드 톤 잠금장치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클러치와 길이 조절 가능한
숄더 스트랩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카라 백. 33×19×4cm,
가격 미정 **페라가모.**
문의 080-001-1927. 브랜드 시그너처
퀼팅 디테일과 더블 C 로고가
특징인 스웨이드와 램 스킨 소재의
숄더백. 17.5×13×6cm,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하우스를 상징하는 모노그램 패턴,
LV 패들록, 롱 스트랩을 갖춘 스콰이어
이스트 웨스트. 29×14×8cm,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위부터 차례대로) 아르디엔 구조의 일체형 실루엣과 투톤 스트랩이 특징인 미닝 미디엄.
28×15×9cm, 3백90만원
참 샌더. 문의 02-6905-3530.
비세트스 캔버스에 원핸 하우스의 로고 프라스 플레이트를 가미한 Dessau 비세트스 드로우스트링 백. 22×28×14cm, 1백85만원
MCM. 문의 1600-1976. 불필요한 장식 없이 고급스러운 스웨이드 스재와 모던한 사이프가 돋보이는 가볼로 호보 백. 27×34×18cm, 3백5만원 **웅를레르.** 문의 0030-8321-0794
애디터 **강하얀**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포니 레이 텍스처의 송아지가죽 스재에 타이거 프린트를 입히고, 탈착 가능한 스트랩과 멀러링 비닉시 FF 버클로 마무리한 바게트® 백. 26×14×4cm, 5백만원대 **펜디.**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포니 레이 텍스처의 송아지가죽 스재에 타이거 프린트를 입히고, 탈착 가능한 스트랩과 멀러링 비닉시 FF 버클로 마무리한 바게트® 백. 26×14×4cm, 5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544-1925. 상단의 지퍼 프레임과 탄탄 클로저, 날렵한 플랩이 돋군 모던한 지갑스럽게 이어지는 시이니 키프 스킨 소재의 스몰 플레이 백. 24×12×9cm, 5백20만원 **생로느.**
문의 1577-8841. 지동차 디자인의 정교한 디테일에서 영감받아 슬림한 핍 앤틀부터 탈착 가능한 ㄱ백, 손잡이 부분 디테일을 덧이낸 스웨이드 소재 더 밀프 스몰 숄더백. 32×28×11cm, 3백80만원대 **밀프 로랜 컬렉션.**
문의 02-3467-6660



톰 포드 뷰티 런웨이 리퀴드 립 컬러 매트 #137 블러시 앱솔뤼 톤 다운된 핑크 컬러로 피부 톤에 구애받지 않으며 파우더처럼 부드러운 텍스처가 입술에 가볍게 밀착돼 매끈한 립을 완성한다. 6ml 6만9천원대. 문의 1644-3952
_by 에디터 **김하얀**

나스 쿼드 아이섀도우 #벨로즈 핑크 베이스에 골드 글리터가 포인트를 더해줄 아이섀도. 데일리부터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4.4g 7만5천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인턴 에디터 **김지현**

YOUTH BOOST

폴라초이스 셀룰러유스 롱제비티 세럼 자체적인 재생 능력을 서포트해 스스로 건강한 피부를 되찾도록 돕는 세럼으로 보라색 텍스처가 끈적임 없이 흡수된다. 30ml 12만9천원. 문의 1661-6656
_by 에디터 **성정민**

겔랑 뢰르 블루 오 드 퍼퓸 낮과 밤 사이 짙은 푸른빛으로 물드는 블루 아워에서 영감받은 앰버 플로럴 향수. 은은한 아이리스와 달콤한 바닐라가 어우러져 깊고 부드러운 향을 선사한다. 50ml 가격 미정. 문의 080-343-9500
_by 인턴 에디터 **김지현**

SKIN COMFORT

레블레뜨 오트 스킨 리뉴잉 크림 바르면 물방울이 팡 터지는 독특한 텍스처가 일품. 건조한 환절기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준다. 50ml 7만원대. 문의 1644-2525
_by 에디터 **성정민**

아베다 핸드 릴리프™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위드 뷰티파잉 아로마 안디로바 오일과 식물성 보습 성분이 손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꿔주며, 로즈메리와 라벤더, 베르가모트가 어우러진 아로마가 은은한 향을 더한다. 100ml 3만3천원. 문의 02-3440-2905
_by 에디터 **신정임**

엘로리아 위드 유 오 드 퍼퓸 #라온 제주의 햇살을 온몸으로 마주한 듯, 상큼한 한라봉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달콤한 야생 딸기 향이 뒤따른다. 포근한 샌들우드와 머스크가 부드러운 잔향을 남기며 여운을 선사한다. 100ml 33만9천원. 문의 070-4001-7815
_by 에디터 **김하얀**

ORAL CARE

자주 충치케어 치약 불소 1,450ppm과 천일염, 죽염, 히말라야 솔트를 함유해 효과적인 구강 케어가 가능하고, 정향유와 스피아민트 오일이 개운한 양치감을 선사한다. 150g 6천9백원.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신정임**

샹테카이 러스터 글라이드 아이 라이너 가넷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발리는 펜슬 타입으로, 눈매에 깊이를 더하고 섬세한 라인을 손쉽게 연출할 수 있다. 1.2g 6만1천원대. 문의 070-4370-7511
_by 에디터 **신정임**

※ 갈라진 머리 자국, 상한 모발에 머리 만질 때 느껴지는 거친 촉감 개선

Editor's Pick

화사함을 더해줄 메이크업부터 스킨케어, 향수와 구강 케어 제품까지. 새로운 계절을 맞아 눈여겨볼 이달의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KIM YOU TAE**

Show room

1 에르메스 더블 투어 컬렉션
손목을 두 번 감싸는 하우스의 시그너처 곡선미를 담은 에르메스 '더블 투어' 컬렉션. 주얼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피에르 아르디가 이끈 이번 컬렉션에는 물결처럼 이어지는 '크레센도' 네크리스, 연결과 분리가 특징인 '젤리 마이유'와 '쉔 당크르 나이아드' 브레이슬릿, 여러 겹으로 얽힌 '베르티주' 링 등을 선보인다. 문의 02-542-6622

2 버버리 뷰티 버버리 가디스 앰버 바닐라
풍부한 바닐라와 따뜻한 앰버 향이 어우러진 여성 향수. 화사한 라벤더와 달콤한 메이플 시럽으로 시작해 부드러운 바닐라 향이 이어지며, 온화하고 깊은 앰버 향으로 마무리된다. 석양을 닮은 황금빛 보틀에 골드 캡을 더했으며, 리필 가능한 구조로 완성했다. 문의 080-850-0708

3 로로피아나 백 투 스쿨 컬렉션
선선해진 날씨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로로피아나의 '백 투 스쿨' 컬렉션. 다양한 레이어링과 여유로운 실루엣을 바탕으로 편안하면서도 정제된 스타일을 제안한다. 특히 '스파냐(Spagna)' 재킷은 브랜드의 독점 소재인 '페코라 네라' 섬유로 완성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절제된 우아함을 강조한다. 문의 02-6200-7799

4 프레드 포스텐 컬렉션
프레드가 포스텐 컬렉션 탄생 60주년을 맞아 페미닌한 감성을 담은 새로운 네크리스와 이어링을 선보였다. 바다와 항해에서 영감받은 포스텐 컬렉션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대담하면서도 빛나는 여성성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514-3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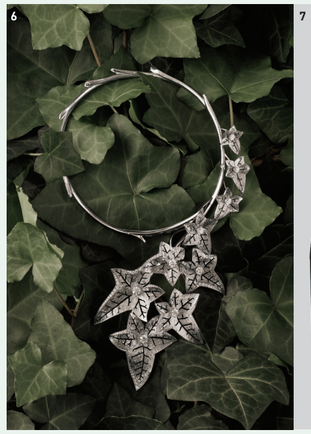
5 파네라이 루미노르 피렌체 8 지오르니
파네라이가 피렌체 산 조반니 광장 부티크 개점 100주년을 기념해 '루미노르 피렌체 8 지오르니' PAM01734와 PAM01794를 선보인다. 1960년대 제작된 메종의 빈티지 다이버 워치에서 영감받은 이번 신제품은 크기 44mm 케이스로 재해석되었으며, 자체 제작 수동 무브먼트 P.5000을 탑재해 8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문의 1670-1936

6 부쉐론 리에르 드 파리
부쉐론이 '리에르 드 파리' 컬렉션의 새로운 주얼리를 공개했다. 아이비의 강한 생명력에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으로, 잎과 줄기를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아이비처럼 몸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유려한 실루엣이 돋보인다. 문의 080-822-0250

7 보테가 베네타 디아고 백팩
보테가 베네타가 2026 겨울 컬렉션에서 실용성과 정제된 디자인을 담은 새로운 '디아고 백팩'을 선보였다. 그레인 레더로 완성한 미니멀한 실루엣에 하우스의 시그너처인 인트레치아토 위빙 레더 플랩을 더해 브랜드 특유의 장인 정신을 강조했다. 문의 02-3438-7694

8 몽클레르 뉴욕 인 몽클레르
몽클레르가 하우스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온 도시 뉴욕에서 회고전 〈뉴욕 인 몽클레르〉를 개최했다. 뉴욕과 몽클레르의 상징적인 순간을 담은 대형 사진 작품을 도시 곳곳에서 선보인 이번 전시는 지난 20여 년간 뉴욕을 배경으로 이어온 문화적 교류와 협업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였다. 문의 0030-8321-0794

9 록시땅 아몬드 소프트닝 샤워 오일
록시땅이 피부 보습을 위한 '아망드 쉬블리므 바디 히어로 컬렉션'을 공개했다. '아몬드 소프트닝 샤워 오일'은 자연 유래 아몬드 오일을 함유해 샤워 후에도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결을 선사하며, 은은한 아몬드 향이 기분 좋게 퍼진다. 문의 02-2054-0500



LOUIS VUITTON
COLOR BLOSSOM
FINE JEWELRY